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20호 【루계 제25629호】 주체106(2017)년 4월 30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평양

##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원수각하께

저희들은 페루 리마에서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아메리카지역준비위원회와 페루준비위원회의 공동주최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관한 아메리카지역인터네트토론회를 진행하고 원수각하께 이 편지를 올립니다.

2017년은 세계자주화위업수행과 조선의 자유와 부강발전을 위한 길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5돐과 김정일령도자의 탄생 75돐이 되는 경사스러운 해입니다.

2017년을 백두산절세위인들을 칭송하는 해로 빛내이기 위한 국제적인 활동들이 고조되고있는 속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업적을 길이 전하며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이어나가고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비범한 령도력을 다시금 높이 찬양하는 계기로 되였습니다.

지난 5년간 조선인민은 각하의 세련된 령도밑에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적대세력들의 온갖 제재와 압살책동을 과감히 짓부시며 핵강국의 위용을 떨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을 이룩하였습니다.

지나온 나날들을 통하여 저희들은 조선의 결심은 곧 실천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습니다.

최근년간 조선이 거둔 모든 성과들은 조선을 가장 존엄높은 나라로, 조선인민을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우시려는 김정은각하의 선군정치와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안아온 응당한 결실입니다.

존경하는 원수각하

저희들은 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이 앞으로도 자주적이며 인민적인 우월한 사상과 제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대변하는 강국으로 위용떨치며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념원대로 반드시 통일강국으로 일떠서게 되리라는것을 확신합니다.

저희들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을 널리 소개선전할것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과 권리를 옹호하는 국제적련대성운동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갈것입니다.

저희들은 올해 8월 백두산지구와 평양에서 진행되는 제5차 백두산위인칭송국제축전이 성대히 진행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저희들은 조선에서의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각하께서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관한 아메리카지역 인터네트토론회 참가자일동**

2017년 4월 7일 리마

## 백두산절세위인들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드린다

### 아메리카지역인터네트토론회 페루에서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에 관한 아메리카지역인터네트토론회가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아메리카지역준비위원회와 페루준비위원회의 공동주최로 7일 리마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아메리카지역준비위원회와 지역의 12개 나라 준비위원회들, 페루의 정계, 사회계 인사들, 출판보도관계자들, 시민들, 여러 나라의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 인사들 그리고 페루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 등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페루준비위원회 위원장인 페루공산당(붉은 조국) 국제비서 따니 발레르 로페라가 기조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와 김정일각하, 김정은원수, 김정숙녀사께 토론회참가자들과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반제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신 김일성주석은 자주시대를 대표하는 위인중의 위인, 사상리론의 대가이시라고 칭송하였다.

또한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앙양기를 펼쳐주시였으며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리를 지녀시고 자주와 정의, 평화를 위해 싸우는 많은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성심성의로 지원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류해방의 은인으로 국제사회의 열화같은 경모를 받고계신다고 말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하시였으며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제국주의반동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우리 공화국을 막강한 전쟁억제력을 갖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으로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오늘의 세계에서 당당한 자주국가로 존엄떨치며 인민의 락원을 가꾸어가는 조선의 모습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이야말로 자주시대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이어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천만군민을 확신성있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아래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빛나게 구현된 우리 나라에서 새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는데 대하여, 세기를 이어 길이 전해질 항일의 녀성영웅, 백두산녀장군의 커다란 공적에 대하여 격찬하였다.

그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태양민족이 대대손손 무궁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토론회에서는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조선준비위원회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준비위원회들에서 토론회앞으로 보내여온 편지들이 소개되였다.

계속하여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브라질자유조국당 부위원장 로자니따 깜뽀스, 조선통일지지 꾸바위원회 제1부위원장 후안 호세 레온베가, 베네수엘라조선친선 및 련대성협회 위원장 디에고 안또니오 리베로, 에꽈도르 렐레 안디나 23TV방송국 총사장 넬슨 오르띠스는 위대한 수령님을 력사에 전무후무한 불세출의 대성인,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영원한 태양으로 칭송하면서 조선인민은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신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을 억세게 틀어쥐고 강국건설에 떨쳐나서고있다, 계급해방, 민족해방, 인간해방의 길을 밝혀주시고 인류자주위업실현에 커다란 기여를 하신 주석께서는 조선인민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걸출한 수령으로 영생하신다고 말하였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에꽈도르위원회 위원장 다니엘 알바레스 쎌리는 정규군의 지원도 국가적후방도 없이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벌리던 시기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시고 중국혁명을 피로써 도와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후 미제와의 끊임없는 대결속에서도 반제자주를 지향하여 싸우는 나라 인민들에게 물심량면의 지지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세계사회주의운동은 김일성주석께서 평화를 위해 쌓으신 위대하고도 력사적인 공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접견을 받은 그날의 영광을 지금도 가슴속깊이 간직하고있는 파린아메리카주체사상연구소 명예위원장 호세 프란씨스꼬 아길라르 불카헬리는 이렇게 토로하였다.

김일성주석을 뵈옵는 특권을 지니였던 우리는 그이이시야말로 세리혜안의 예지를 지니신 희세의 위인이시라는것을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다.

주석께서는 국제적사변들을 연구분석하신데 기초하여 가장 정확하고 적중한 조언들을 우리에게 주시였다.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지침을 마련해주신 그이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2면으로 계속

#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따라 계속 힘차게 앞으로!

##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총진군을 힘있게 추동

### 함경남도당위원회에서

함경남도당위원회에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있게 추동하여 큰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정치사업무대를 들끓는 전투현장으로 옮기고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들이대여 대중을 당의 사상과 정책을 관철하는 총동원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당정책, 기본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함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도당위원회일군들은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우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을 신념의 강자, 자력자강의 투사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일대사상전을 힘있게 전개하였다.

만리마선구자대회가 진행되는 올해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비약적인 승리를 안아오자면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부터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고 본 도당책임일군들은 지난 3월 도안의 시, 군, 련합기업소 당책임일군들로 신흥지구혁명진적지에 대한 답사를 조직하였다. 전적지들에 대한 참관, 행군의 실천에 진행된 회상기연구발표모임, 장편서사시 《백두산》에 대한 시랑송발표모임 등을 통하여 당책임일군들은 전민총돌격전의 기수가 될 불같은 맹세를 가다듬었다.

도당위원회는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자강력의 소유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킴으로써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8비날론련합기업소, 단천광업건설련합기업소 당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전투현장에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에 대한 연구발표모임을 진행하고 혁명전적지답사도 조직하는 등 혁명전통교양을 실정에 맞게 진행하여 대중의 열의를 남김없이 폭발시켰다.

도당위원회는 학습담화, 개별교양, 집체교양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만리마선구자대회의 목적과 중요성, 정치적의의를 깊이 인식시키였다. 또한 생산과 건설에서 로력적성과를 이룩하고있는 단위와 일군들, 근로자들을 속보판, 영예게시판, 방송선전차 등 선전선동수단들을 동원하여 널리 소개선전하는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도당위원회의 이러한 정치사업은 대중의 열의를 적극 발동시켜 도안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였다.

도당위원회는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는데서 중심고리로 되는 단위들에 력량을 집중하여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굴지의 화학공업기지들을 비롯하여 도의 중요단위들의 생산정상화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함남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생산을 추켜세우는데 힘을 집중하였다. 도당위원회 각 부서들이 고원탄광의 갱들을 하나씩 맡아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는 과정을 통하여 석탄생산을 힘있게 추동하도록 하였다. 전진갱을 맡은 조직부, 전차갱을 맡은 선전선동부를 비롯하여 도당위원회 각 부서 일군들은 후방물자들과 작업공구들을 마련해가지고 탄부들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진행하여 대중의 열의를 남김없이 폭발시켰다. 그리하여 탄광이 3월 21일까지 1.4분기 석탄생산계획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생산활성화를 도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내밀어 련합기업소가 배말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하였다.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추켜든 도당위원회의 이러한 조직정치사업에 의하여 곳곳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함남지구탄광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소, 룡성기계련합기업소, 장진강발전소, 부전강발전소를 비롯한 1 668개 단위가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당위원회는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갔다.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보급실들을 잘 꾸려 지난해말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운영을 정상화하여 올해에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큰걸음을 내짚도록 사업을 짜고들었다.

도당위원회는 올해 과학기술발전의 중심을 원료, 연료, 설비의 국산화에 두고 당적지도를 심화시켰다.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이 국산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도록 하였다.

지난 3월말 도과학기술위원회의 주최로 함경남도 원료, 연료, 설비의 국산화전시회가 진행되였다. 도안의 130여개 단위가 참가한 전시회에는 천수백건의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자료들이 출품되였다. 송번건설비의 기술개조를 우리 식으로 실현하여 많은 전기를 절약하게 한 함경남도송배전부, 우리 식의 질좋은 인공단더생산공정을 새로 확립한 함흥모방지공장, 수입에 의존하던 전극을 국산화하여 강철공업의 주체화실현에 크게 기여하였을뿐아니라 국산화된 테라코텐을 연구개발하여 나무모사품들을 90%이상 보장할수 있게 한 국가과학원 함흥분원을 비롯하여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함흥리동력대학 등 많은 단위들에서 훌륭한 과학기술적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도당위원회는 국산화실현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를 내놓은 단위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높이 평가하고 내세워주었으며 시상도 크게 하여 그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과학기술발전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도과학기술위원회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도 방법론있게 내밀었다.

자력자강,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쥔 도당위원회의 참신한 조직정치사업은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향란

## 합금철생산의 주체화실현에서 이룩된 성과

### 부령합금철공장에서

부령합금철공장에서 합금철생산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랑할만 한 성과를 거두었다.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수십종에 수백개에 달하는 설비와 부분품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하여 가스청정계통과 랭각계통을 비롯한 여러 계통들로 이루어진 갈탄건류로를 새로 일떠세웠다.

100%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와 자재로 건설된 갈탄건류로는 당의 국산화방침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다.

갈탄건류로가 짧은 기간에 일떠섬으로써 북부지구에 무진장한 갈탄을 리용하여 질좋은 반성콕스를 생산할수 있게 되였으며 그에 의한 합금철생산의 주체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또한 갈탄건류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인 타르를 가지고 질좋은 점결제를 생산하여 전극생산의 국산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게 되였다.

합금철생산의 주체화실현에서 이룩된 이 자랑찬 성과는 온 나라에 국산화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불타는 충정과 애국적헌신성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주체철생산기술을 완성하며 수입에 의존하는 원료, 자재, 설비들을 국산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다그쳐야 합니다.》**

철강재의 질제고에서 합금철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공장의 일군들은 질좋은 합금철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작전과 지휘를 통이 크게 해나갔다.

합금철생산에 필요한 환원제로서는 무연탄보다 반성콕스가 더 실용적이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반성콕스에 의한 새로운 합금철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리였다.

반성콕스에 의한 합금철생산체계확립에서 심장부와도 같은 갈탄건류로의 건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초행길과 다름없었다.

이곳 일군들과 기술집단은 금속공업성 강철설계연구소의 연구집단과 지혜를 합쳐가며 설계와 기술공정표작성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공장의 책임일군들은 힘있는 화선식정치사업으로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켰으며 걸린 문제들을 솔선 앞장에서 풀어나갔다.

공무보수직장을 비롯하여 건설에 동원된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건류로건설에 필요한 많은 설비들과 부분품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설치하였다.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은 누구나 한가지이상의 기술혁신안을 내놓기 위하여 힘과 지혜를 합쳐나갔다. 그리하여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이 창안도입되여 많은 자재와 부분품들을 절약하면서 원료공급계통과 랭각계통설치를 짧은 기간에 끝낼수 있게 되였다.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로건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 짧은 기간에 갈탄건류로를 일떠세우고 부분별시운전을 진행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갈탄건류로의 총시운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여 반성콕스에 의한 합금철생산을 시작하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 통나무생산성과 계속 확대

### 자강도림업관리국에서

강원도에서 레년에 없는 참미역대풍 마련

강원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새로운 양식방법을 받아들여 그 력을 단단히 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바다가양식을 많이 하면 바다어업의 계절적제한성을 극복하고 얕은바다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수산물생산을 늘일수 있으며 인민들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할수 있습니다.》**

올해에 도에서는 바다를 낀 유리한 조건에 맞게 바다가양식면적을 늘이고 종전의 메식참미역양식방법대신 새로운 바닥식참미역양식방법으로 레년에 없는 참미역대풍을 마련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양식시설물을 물웃층에 띄워서 진행하던 종전의 메식양식방법은 바다나물이 우에서 아래로 거꾸로 자라므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띄우개를 리용하다보니 로력과 자재도 많이 들었다.

원산수산대학 수산과학연구소 실장 박사 리성검동무를 비롯한 연구사들이 연구도입한 바닥식참미역양식방법은 바위나 돌에 뿌리를 내리고 해빛을 충분히 받으며 우로 자라는 참미역의 특성에 맞게 메줄을 바닥에 가라앉혀 생산하는 새로운 양식방법이다.

어려해전부터 이 양식방법을 도의 많은 단위들에서 받아들인 경험에 의하면 종전보다 자재와 로력을 극력 절약할뿐아니라 참미역성장속도가 빠르고 그 질도 자연참미역 못지 않으면서 생산성은 2배이상 높아졌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다. 새로운 양식방법으로 참미역이 무성하게 자라 조개와 물고기를 비롯한 바다자원이 늘어나고 수질이 좋아져 생태환경도 훨씬 유리해졌다고 한다.

도에서는 도바다가양식지휘부를 내오고 모든 시, 군들과 도급단위들, 공장, 기업소들에 바다가양식사업소와 양식작업반을 조직하고 바다가양식을 대대적으로 밀고나가도록 하였다.

한껏 부풀어오른 대지에서는 봄철영농전투가 한창이지만 참미역수확철을 맞은 바다가에서는 양식공들이 부르는 《바다 만풍가》와 더불어 륭다른 가을풍경이 펼쳐졌다.

도에서는 바다가양식을 대대적으로 벌려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신천일

자강도림업관리국안의 림산, 갱목생산사업소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통나무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90%이상 수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힘찬 돌격전을 들이대여 성과를 더욱 확대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난해에 이룩한 승리를 공고히 하면서 5개년전략수행의 확고한 전망을 열고 나라의 경제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자면 올해 전투목표를 기어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림업관리국의 일군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뜻깊은 올해에 더 많은 통나무를 생산하여 탄광들과 대교조전투장들에 보내줄 높은 목표를 세우고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주면서 림산, 갱목생산사업소들의 생산을 힘있게 떠밀어주고있다. 리종철, 최동식, 최충길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통나무증산투쟁으로 들끓는 산판들에 올라가 화선식정치사업을 벌려 로동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발동시키면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제기있게 해나가고있다.

관리국안의 모든 림산, 갱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산지통나무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그들은 기계화를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소발구운재와 통쏘이를 적극 배합하여 매일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철철 넘쳐 수행하는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강계, 위원, 고인, 양계, 희천갱목생산사업소와 자성, 화평림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통발나무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선군봉화상쟁취를 위한 사회주의경쟁공동순회우승기를 수여받은 기세로 사이나르기와 마감나르기전투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강계갱목생산사업소의 작업소들에서는 나무베기와 가지다듬기를 앞세워 많은 통나무를 확보해놓은데 맞게 나무모으기에 력량을 집중하는 한편 곳곳에 통쏘이길을 내여 많은 통나무를 끌어내리고있다.

산판마다에 전개된 위원갱목생산사업소의 작업소들에서도 사회주의증산경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로동자들은 지형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나무베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매일 맡겨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고인갱목생산사업소에서는 림철기관차들의 신동률을 높이면서 마감나르기실적을 부쩍 올리고있다.

삼락, 강계갱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운전사들은 서로의 지혜를 합치고 합리적인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연료를 적게 쓰면서도 화물자동차들의 가동률을 높여 마감나르기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희천갱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지형조건에 맞게 삭도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연료를 전혀 쓰지 않고 사이나르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관리국안의 림산사업소, 갱목생산사업소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산지통나무베기에 력량을 총집중하면서 물전기재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사이나르기와 마감나르기에서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김순홍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답전을 보내여왔다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 정 은 각 하**

나는 김일성주석각하의 탄생 105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각하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조선인민이 강성번영을 이룩할것과 아울러 적도기네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공고발전되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친근한 벗이신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
오비앙 느게마 므바쏘고
2017년 4월 12일 말라보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 정 은 각 하**

친근한 벗이신 위원장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영원한 주석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의 탄생 105돐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전체 민주콩고인민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이 행복한 기회에 당신과 함께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나가려는 나의 의지를 재확언하는바입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시고 귀국을 령도하시는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친근한 벗이신 위원장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콩고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죠제프 까빌라 까방게
2017년 4월 13일 킨샤사

평 양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 정 은 각 하 께**

저는 김정은각하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재건 및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당창건 15돐에 즈음하여 축전을 보내준데 대하여 재건 및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당의 창건자이며 콩고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인 죠제프 까빌라 까방게통지와 그리고 저자신의 이름으로 사의를 표하는바입니다.

저는 이 기회에 조선인민의 보다 훌륭한 미래를 축원하면서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을 위하여 조선로동당과 협력해나갈 민주콩고재건 및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당의 의지를 재확언하는바입니다.

민주콩고재건 및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당 총비서
앙리 모바 싸까니이
2017년 4월 14일 킨샤사

#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앞으로도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갈것이다

## 국제사회계가 찬양

백두의 천출명장들을 진두에 모시여 천하무적의 혁명강군으로 세계만방에 위용떨치는 영웅적조선인민군에 대한 격찬의 목소리가 국제사회계에서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민주콩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이런 글을 올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선군사상의 창시자이시다. 1926년 10월 17일 《ㄷ, ㄷ》를 결성하시고 1930년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혀주신 그이께서는 《무장은 우리의 생명이다! 무장에는 무장으로!》라는 구호를 내놓으시였다.

무장투쟁준비를 면밀히 다그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군의 전신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은 한세기에 미일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는 세계전쟁사에 없는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였다.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앞으로도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갈것이다.

로씨야신문 《웨체란》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방후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된 조선인민군은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에 이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 등 미제의 끊임없는 새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고 전하였다.

수리야 디마스끄종합대학 정치학부 강좌장과 만마 미트 라르 모출판사 총사장은 김일성주석의 뜻을 받들어 김정일각하께서는 1960년 8월 25일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불철주야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의 강군으로 키우시고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여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해놓으시였다, 그이의 선군정치에 의해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한 강위력한 핵억제력까지 보유하게 되였다,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나라와 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한 역년기틀을 다지신 김정일각하의 선군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한평생 걷고 걸으신 선군혁명의 길을 끝까지 이어나갈 철석의 의지를 표명하신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력강화를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손길아래 튼튼히 다져지고 그 어떤 대적도 단매에 쳐물리칠수 있는 혁명강군, 최강의 군대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시여 그 힘이 더욱 백배해졌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는 인터네트홈페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투쟁하여온 기간은 선군조선의 위용이 힘있게 과시된 긍지높은 나날이였다. 조선인민군은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줄수 있는 최정예강군으로 자라났다. 만일 미제가 력사적으로 참패만을 당해온 쓰디쓴 교훈을 망각하고 감히 덤벼든다면 조선인민군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단호히 쓸어버리고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 받들어 사회주의강국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날 결의에 넘쳐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 우리 수령님의 담력과 배짱으로

우리 인민에게는 그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힘을 넘겨다보지 않으며 이 땅우에 세인을 놀래우는 력사의 기적들을 창조하면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가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시였던 강의한 담력과 배짱을 그대로 받은 인민이기에 영웅적인민, 위대한 인민으로 존엄떨치고있는것이다.

오늘과 같이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백두의 메부리마냥 끄떡없는 담력과 배짱의 강자로 되기까지 우리 장군님께서 바쳐오신 끝없는 심혈과 로고의 나날들이 가슴뜨겁게 되새겨진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주체86(1997)년 1월 어느날이였다.

남로 준엄해지는 정세에 대처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결정적전환을 안아오실 방향을 구상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부르시였다.

일군들의 귀전에 우리 장군님의 추억깊은 음성이 들려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해에는 정말 힘겹게 일하였다고 하시면서 전선동부와 서부, 외진 섬의 방어대, 판문점초소와 군관학교들에 이르기까지 다 찾아가자니 힘겨운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다고 하시였다.

일군들의 뇌리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 한해 쉬임없이 넘고 헤치신 선군장정의 길이 떠올랐다.

그럴수록 화를 북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시며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온 세상에 떨쳐주신 우리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경모의 정으로 눈굴이 젖어들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직접 다녀보지 않고 책상에 앉아 인민군대에서 보고하는 자료만 가지고 투쟁방략을 세울수 없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가볼데는 다 가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보아야 할 곳은 힘겨워도 다 가보았다고, 물론 이제는 다 가볼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올해에도 더 많은 일을 할 결심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잠시후 올해에는 모든 일이 다 잘되여나갈것이라고 력관하시며 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교시가 일군들의 심장을 쿵쿵 울리였다.

올해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변혁을 일으키기 위한 전환적국면을 마련하자면 수령님의 담력과 배짱으로 전투를 벌려나가야 한다. …

수령님의 담력과 배짱으로!

그이의 귀중한 가르치심은 일군들을 깊은 사색에로 이끌어갔다.

동지들과 두자루의 권총을 가지고 강대한 일본제국주의와의 전면대결전을 선포하신 위대한 수령님,

력사의 그 나날들과 더불어 암흑의 조선을 광명의 조선으로 빛내이시고 침략의 불길을 조국수호, 창조와 번영의 열풍으로 다스리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전환시켜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생애,

그것은 그이께서 지니시였던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우리 수령님 특유의 담력은 그 어떤 외성벽력에도 끄떡하지 않는 강인담대성과 무슨 일이나 통이 크게 설계하고 끝까지 밀고나가는 완강한 실천력이였다.

그이의 배짱은 그 어떤 대적도 격파해버리는 공격정신과 불가능을 모르는 든든한 배심,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여유작작한 배포였다.

정녕 그것은 백두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위업이 만난시련을 뚫고 백승의 한길로만 줄기차게 전진할수 있게 한 거대한 힘의 원천이였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수령님께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마련하신 당과 국가, 혁명무력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였다고, 자신께서는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이 귀중한 유산을 확고히 고수하면서 주체혁명위업을 반드시 완수하고야말 결심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따라 시작한 이 혁명을 기어이 장군님 따라 승리렬차같 무한한 신심과 용기로 가슴 뿌듯이였다.

수령님의 담력과 배짱으로!

그것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강력한 추동력이다.

본사기자 김성남

## 1면에서 계속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인류자주위업의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고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등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사회주의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부어주시였으며 선군의 보검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신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칭송하여 김정일령도자회고 브라질위원회 위원장 아벨리누 리베이루, 페루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서기장 엘레아싸르 라모스 로아르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현대성 우루과이위원회 위원장 페르난도 이리고옌이 리신 격정의 목소리들은 토론회참가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그들은 《사회주의완전종말》을 떠들어대는 제국주의자들과의 치렬한 대결에서 조선인민은 승리하였다, 현실은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의 《주장》의 허황성을 보여주는것과 동시에 사회주의는 과학이고 진리이며 인류가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것은 어길수 없는 력사발전의 법칙이라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날로 비약하는 조선의 눈부신 모습은 사회주의의 거대한 생활력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고 토론하였다.

조선의 선군정치는 제국주의자들의 가증되는 압살책동을 물리치고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낼수 있게 하는 유일한 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가 있는 한 조선의 신성한 령토와 인민을 제국주의자들은 감히 건드릴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바베이도즈위원회 위원장 데이비드 데니, 아이띠조선문화협회 위원장 노엘 스메브, 볼롬비아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 페르난도 싼체스를 비롯한 토론자들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회주의강국건설념원을 눈부신 현실로 꽃피우시며 백두산대국의 위력을 만방에 과시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통지를 열렬히 격찬하였다. 그들은 이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시사시를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위대성에 대하여 감동깊게 해설하고 조선은 진보적인류의 희망의 등대, 모두가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는 인민의 나라이다, 제국주의강권과 예속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 그대로이신 김정은각하의 사상과 업적을 깊이 연구체득하여야 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그리고 김정일각하께서 마련해주신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에 기초하여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시려는것이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만약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이 조선반도에서 끝내 새 전쟁을 일으킨다면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천금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침략자들을 단매에 쓸어버릴것이며 민족의 통일념원을 반드시 성취할것이다고 말하였다.

토론회가 진행되는 전기간 발언자들은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사회주의조선 만세!》 등의 구호들을 웨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 선군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켜

은률광산 초급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일군들이 대중속에 들어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과 위대성이 실린 당보와 도서들에 대한 독보와 해설보임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얼마전 청년광구에 나간 초급당일군은 작업의 설참을 리용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적혁명무력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데 대하여 생동한 자료를 겉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는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자고 호소하였다.

그의 이야기는 대중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지금 이곳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절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일념안고 광물증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가고있다.

로농통신원 심운섭

#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바치신 헌신의 자욱

얼마전 우리는 선교구역연료사업소를 찾았다. 사업소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에서 인민들의 땔감문제해결을 위해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더듬어보는 우리의 생각은 깊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과 령도에 구현하여 현실로 꽃피우신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한생이였다.》**

산뜻하게 꾸려진 사업소정문안으로 들어선 우리는 구역안의 주민세대들에 필요한 연료를 제때에 보장하기 위해 아글타글하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슴뭉클하게 해주는 사연이 우리의 취재태도를 더욱 진지하게 하여주었다.

사업소의 구내길에서 우리와 만났던 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궂은날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사업소에 찾아오시였던 어버이수령님의 기특한 자욱은 수십년이 흐른 오늘도 우리들의 가슴속에 뜨겁게 새겨져있습니다. 기름묻은 로동자의 손도 허물없이 잡아주시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시던 우리 수령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천만년세월이 흐른들 어찌 잊을수 있겠습니까.》

격정에 젖은 일군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먼저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자욱이 새겨져있는 혁명사적전물과 그곳에 꾸려진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았다.

사업소의 발전력사가 함축되여있는 연혁소개실에 들어서는 우리의 눈앞에 한상의 영상사진문헌이 숭엄히 안겨들었다.

인민들에게 공급할 구멍탄을 손수 만져보시며 그 생산정형과 보관관리에 대하여 일일이 알아보시는 어버이수령님.

지금은 가스와 지열을 비롯한 에네르기가 연료로 쓰이지만 1960년대 그 시기에는 구멍탄이 주민용 땔감으로 널리 리용되고있었다.

자애로운 어버이의 그 영상 우리를수록 솟구치는 마음속격정을 진정할수 없었다.

일군은 우리에게 잊지 못할 그날의 사연을 들려주었다.

그날은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인 주체55(1966)년 4월 16일이였다. 이날도 현지지도를 마치고 돌아오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한 집에서 세대주가 땀을 철철 흘리며 구멍탄을 빚고있는 모습을 띄어보게 되시였다.

차창너머로 그 광경을 바라보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안색은 흐려지시였다.

그이께서는 근심어린 어조로 지켜봄 어떻게 기계화하여 인민들의 무담을 덜어주어야 하겠는데라고 조용히 되이시였다.

그때 동행하던 한 일군이 그이께 이 얼마인가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이윽토록 제품창고에 그득히 쌓여있는 구멍탄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몸소 구멍탄을 손으로 눌러보시며 딴딴한가를 가늠해보시였다. 지어는 구멍탄을 손에 드시고 구멍이 제대로 뚫어져있는가도 세세히 살펴보시였다.

뜻깊은 그날 구멍탄찍는 공정과 공급정형에 대하여 알아보시며 로동자들에게 로동보호물자를 정상적으로 공급하도록 은정깊은 사랑을 베풀어주신 우리 수령님,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령도자도 많지만 이렇듯 자그마한 구멍탄분공장에까지 찾아오시여 인민을 위한 사랑의 자욱을 남기신 그런 절세의 위인이 있은적 있었던가.

진정 잊지 못할 어버이수령님의 그날의 현지지도는 이곳 로동자들의 가슴마다에 인민의 참된 충복답게 더 잘 일해가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준 뜻깊은 현지지도였다.

《우리의 크지 않은 일터에 감격과 환희가 넘치던 력사의 그날을 우리 어찌 잊을수 있겠습니까. 정녕 우리 수령님은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궂은날도 가리지 않으시고 자그마한 구멍탄분공장에까지 찾아오시여 현신의 로고를 다 바치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십니다.》

격정에 넘친 한 일군의 말이였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언제나 인민들의 땔감문제에 관심하시고 그 해결을 위한 방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도 있을세라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며 이곳 로동자들모두가 뜨거운 격정의 눈물을 흘리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를 받은 이후 이 사업소에서는 모두가 달라붙어 기술을 혁신하고 기계설비들의 능률을 높임으로써 훨씬 많은 구멍탄을 찍어내게 되였다고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높이 받들고 이룩한 투쟁성과를 보여주는 연혁소개실의 자료들, 생산능력조성과 설비관리에서의 성과자료들 그리고 생산문화, 생활문화화면에서 거둔 성과자료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사업소가 얼마나 자랑찬 길을 걸어왔는가를 감동깊이 느낄수 있었다.

이뿐이 아니였다.

수도시민들의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주민용연료문제해결에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온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자랑스러운 성과들도 연혁소개실에 전시되여있었다.

그중에서도 능률높은 기계설비들의 제작설치, 과학기술발명과 창의고안을 비롯하여 기술개건에서 이룩한 성과는 이곳 사업소의 커다란 자랑이였다.

일군의 이야기는 계속되였다.

《우리 기업소가 이처럼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자랑찬 발전의 길을 걸어오며 인민을 위해 복무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때문입니다.》

틀을수록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었다. 크지 않은 이 기업소의 연혁, 그것은 이민위천의 숭고한 뜻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얼마나 뜨거우며 그 사랑속에 인민의 행복이 어떻게 꽃펴났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축도이기도 하였다.

연혁소개실을 나선 우리는 남신구멍탄분공장을 돌아보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사적이 어린 일터에 서니 이곳 로동자들에게 커다란 힘과 고무를 안겨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그날의 인자하신 모습이 안겨오고 그이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귀전에 쟁쟁히 들려오는듯싶어 쉬이 발걸음을 옮길수 없었다.

줄비하게 늘어선 기계설비들을 바라볼수록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신 절세위인들의 애국헌신의 자욱자욱이 뜨겁게 안겨오고 그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려는 이곳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열망이 그대로 엿보였다.

인민생활에서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의 참된 봉사자로 살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고있었다. 특히 이들은 구역안의 거의 모든 공급소들과 분공장들을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키고 분쇄기, 성형기들과 저열탄연소첨가제도 만들어냈다.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의 친자식, 한식솔이 되여준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헌신과 사랑의 이야기는 구역안의 전쟁로병, 영예군인 어느 가정에나 소중히 간직되여있다고 한다.

인민의 심부름군, 참된 충복으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 끝없는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고있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자욱이 어려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이 소중히 간직되여있었다.

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끝없는 헌신의 자욱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인민사랑의 보록에 자기들의 발걸음을 따라세우려는 선교구역연료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열망과 지향을 느끼며 사업소를 나서는 우리의 마음도 뜨거웠다.

본사기자 김일권

# 당조직들은 혁명전통교양을 중차대한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가자

## 혁명사적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짜고들어

### 함경북도당위원회에서

지난 3월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개건된 조선혁명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혁명의 승패와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이라고 하시면서 당원들과 군인들, 인민들을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의도를 높이 받들고 함경북도당위원회에서는 혁명사적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내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혁명사적사업이 당의 방침과 의도에 맞게 진행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하며 사적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혁명사적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자각하고 이 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일관성있게 진행하여왔다.

도당위원회는 우선 혁명사적관,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비롯한 혁명전통교양거점들을 훌륭히 꾸리고 혁명사적물보존관리를 잘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올해 함경북도의 혁명사적부문에서는 도혁명사적관과 왕재산혁명사적지를 비롯하여 10여개의 대상들을 개건하거나 새로 건설할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도당위원회에서는 집행위원회 확대회의와 협의회를 열고 매 대상들에 대한 로력과 설비, 자재보장대책을 치밀하게 세우도록 하였으며 능력있고 손락이 센 당일군들을 과견하여 이 사업이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되도록 분공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특히 당일군들이 해당단위의 사적일군들과 건설자들에게 헌시기 혁명전통교양을 중차대한 사업으로 내세우고있는 당의 의도를 깊이 침투시키고 그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켜 부탁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도록 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문제를 강조하였다.

도당위원회 책임일군부터 도혁명사적관의 10개 호실을 새로 꾸리는 사업을 책임지고 완강히 밀고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의 일군들과 청진시안의 여러 구역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을 망라하는 건설상무가조직되여 로력과 자재,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면서 설계와 시공을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지난 3월 중순 연사군에 나간 도당위원회 책임일군은 연사혁명사적지 답사숙영소의 개건정형을 료해하고 부족되는 로력과 건설자재들을 원만히 보장받도록 대책을 세워주었으며 무산군 홍암혁명전적지 답사숙영소건설장에 내려간 한 도당위원회 집행위원은 세멘트, 강재를 비롯한 건설자재들을 해결해주어 공사가 힘있게 진척되도록 하였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왕재산혁명사적지의 주차장과 흉단콩크리트포장공사, 신흥촌혁명사적지의 혁명사적건물과 혁명사적표식비, 혁명사적표식주 개건공사, 어랑산림시비일근거지를 원상대로 다시 꾸리는 사업, 국사봉혁명전적지의 답사도로건설을 비롯한 여러 대상들에 대한 공사추진정형을 매주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걸린 문제를 즉시에 풀어주어 공사가 계획대로 진척될수 있게 하고있다.

공사를 책임진 도당위원회일군들은 건설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전개하는 한편 어렵고 힘든 일에 솔선 어깨를 들이밀면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는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전개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사적부문 일군들은 혁명전통교양에서 내용을 더욱 심화시키고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혁명전통교양에서 격식과 틀을 없애고 교양사업을 대상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집체적으로도 하고 개별적으로도 하며 출판보도물과 문학예술작품을 통해서도 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아래당조직들에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답사와 참관을 널리 조직하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뼈에 새기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어 진행하고있다.

지난 1월말 도당위원회에서는 지난해 도안의 혁명사적부문 사업을 총화하면서 겨울철에도 백두산혁명전적지답사를 적극 진행할데 대한 문제, 답사준비를 잘하여 답사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의 실효를 높일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토의되였다. 특히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나운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시며 혁명의 성산에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심장에 새겨안고 답사를 활발히 진행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였다.

지금 청진시, 길주군, 명천군을 비롯하여 도안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왕재산혁명사적지, 상단산혁명전적지를 비롯한 혁명사적지, 혁명전적지들에 대한 답사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지난 2월초 도인민위원회일군들이 눈보라를 헤치며 백두산에 오른데 이어 무산군의 일군들과 로동자, 농업근로자, 청년학생들 1800여명이 연두봉혁명전적지를 답사하였다.

항일혁명투쟁의 피어린 자욱이 아로새겨져있고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통하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빛내여나갈 불같은 결의들을 다지였다.

본사기자 김승표

## 만년재보를 대받드는 초석이 되리

### 신흥군의 당조직들에서

신흥군의 당조직들과 일군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지키고 빛내가는 사업을 가장 중요한 혁명임무로 자각하고 이 사업에 순결한 량심과 의리를 다바쳐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은 우리 혁명의 귀중한 재보이며 혁명전통교양의 중요한 거점입니다.》

영고리당위원회에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리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전적지관리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리당위원회일군들은 혁명전적지관리소 일군들과의 련계밑에 혁명전적지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이 사업을 대중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가고있다.

지난 시기 혁명전적지관리소에 수많은 물자들을 지원한 그들은 올해에도 스스로 많은 관리도구들을 지성껏 마련하여 보내주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혁명전적지도로의 정상관리사업에 누구나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으며 바른골혁명전적지 관리원합숙건실이 제기되였을 때에는 지원물자와 건설자재를 여러차례에 걸쳐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경흥리당위원회 일군들도 우리 혁명의 귀중한 재보인 혁명전적지에 대한 관리사업의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이 사업에 모두가 참가하도록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이들은 맡겨진 혁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도 많은 지원물자를 성의껏 마련해가지고 혁명전적지의 관리원들과 강사들을 자주 찾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해마다 장골혁명전적지의 사적건물보수를 전적으로 맡아 진행하는 사업을 조직하였으며 얼마전에는 리소재지에 있는 사적건물의 관리성원들이 리용할 휴게실을 번듯하게 꾸려주어 그들이 혁명전적지를 지켜선 전초병으로서의 높은 긍지와 영예를 간직하고 맡은 일을 더욱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도록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백두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갈 한마음을 안고 신흥은하피복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대고조의 날파탈을 혁신으로 수놓아가는 드바쁜 속에서도 혁명전적지관리소의 관리원들과 강사들에게 수많은 생활용품과 관리도구를 정성껏 마련하여 보내주는 미풍을 발휘하였다.

얼마전에는 바른골혁명전적지를 비롯한 4개의 혁명전적지들에 수많은 차광막용천을 교체해주는 사업을 진행하여 구호문헌들을 손색없이 영구보존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기여하였다.

동흥리당위원회에서도 혁명전적지관리소의 종업원들과 한식솔이 되여 혁명의 명맥을 지켜가는 사업을 제일가는 사업으로 여기고 진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지난 2월 중순 혁명전적지의 전력보장에 리용되는 전주대들을 새것으로 교체해준것을 비롯하여 혁명전적지관리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성심성의껏 도와주는 사업을 선차적인 사업으로 내밀고있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전통을 만대에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순결한 량심과 의리를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신흥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지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고있다.

본사기자 윤명철

## 여러가지 형식과 수단, 방법으로

### 강사들의 역할에 큰 힘을

태천군의 고치강혁명사적지의 당조직에서는 강사들이 혁명전통교양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당조직에서는 백두산으로 달리는 그들의 마음을 중히 여겨 백두산지구의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조직하였다.

답사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는 보고 느낀 점들을 발표하게 하고 백두산지구의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강사들로부터 배운 강의방법과 경험에 기초하여 만든 해설강의안합평회도 조직하게 하였다.

이런 준비밑에 강의를 진행하니 반영이 좋았다. 군에 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백두의 혁명전통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니 그 인식교양적의의가 더욱 컸던것이다.

이곳 당조직에서는 성과가 클수록 만족하지 않고 강사들의 역할을 높이는데 더욱 큰 힘을 넣어 모든 강사들이 혁명전통교양의 기수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도록 하고있다.

### 실효가 큰 록음편집물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에 가면 자연히 마음은 숭엄해지고 몸가짐도 바로 하게 된다. 홀과 복도, 교실들에 위대성교양을 위주로 하는 수백건이나 되는 5대교양지관판들이 게시되여 하루가 통째로 교양마당으로 되였기때문이다.

그가운데서 특색있는것은 위대성교양실이라고 말할수 있는 홀이다.

하루를 5대교양의 거점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전개할 때 초급당일군은 넓은 홀을 위대성교양마당으로 전환시킬 결심을 하고 여기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렸다. 이 과정에 회고록학습에 도움을 주는 직관판들을 훌륭히 게시하게 되였다. 초급당일군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교직원, 학생들이 우리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배울, 배울 시각 되새겨보며 생활하게 하겠는가를 모색하던 끝에 회고록 록음편집물을 리용할 착상을 하였다. 이렇게 되여 회고록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한 직관판들로 벽면을 가득 채운 홀에서는 《사향가》의 선률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한생을 새겨주는 회고록의 구절구절이 언제나 울려나오게 되였다.

### 실정에 맞는 참신한 방법

진공적으로, 립체적으로, 다각적으로!

이런 견지에서 혁명전통교양을 활발히 벌려나가고있는 신천군 백석리당위원회의 사업을 보면 한가지 좋은 점이 있다. 실정에 맞는 옳은 방법을 적용하여 그 실효를 높여나가고있는것이다.

드바쁜 농사철에 맞게 리당위원회에서는 선동원, 5호담당선전원들이 들끓는 전투장들에 나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해설하는 사업을 더욱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작업반초급일군들의 아침모임과 하루사업총화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지교시관앞에서 진행하게 하였다. 그러니 그들 역시 전투장에 나가서는 농장에 깃든 불멸의 령도업적을 해설하는것으로 하루사업을 시작하고 저녁에는 그에 기초하여 총화하는 좋은 기풍이 서게 되였다.

선동수단들도 포전들에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농장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고있다.

지난해 가을걷이전투때에도 그렇고 올해 거름실어나르기전투때에도 리당위원회에서는 이런 방법을 적용하여 농업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높은 실적을 내게 했다.

본사기자 장철범

## 사적물보존관리사업에 큰 힘을 넣어

### 황해제철소혁명사적관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혁명전통교양을 위해 바쳐온 황해제철소혁명사적관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의 자욱을 더듬어보면 놀라운 기술혁신증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적물들을 본래의 모습대로 보존하려면 사적물에 대한 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곳 혁명사적관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혁명사적물들을 잘 보존관리하는 사업에 현대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당적지도를 짜고들었다.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인 혁명사적물들을 영구보존관리하기 위한 사업은 열성 하나만 가지고는 안되며 철저히 과학기술에 의거해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이 초급당위원회가 당적지도에서 일관하게 견지한 원칙이고 립장이였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사적물들을 영구보존관리하는데서 일정한 전진을 이룩하였다고 만족해하고있던 때의 일이였다.

성과는 크지만 사적물들을 만대에 길이 전할수 있게 영구보존관리하려면 과학기술에 보다 철저히 의거해야 한다고 본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더 큰 목표를 내걸고 투쟁하도록 하였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물분해에 의한 불활성가스생산공정에 활성동에 의한 미량산소제거기를 새로 제작하여 설치하도록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나갔다. 새로운 기술혁신목표수행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함으로써 불과 몇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하여 혁명사적물종합보존실의 수많은 혁명사적물들을 영구보존관리하는데 이바지하게 되였다. 이 과정에 보존연구원들인 리동호, 라기철동무를 비롯한 종업원들이 기술혁신증서를 수여받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또한 혁명사적관종업원들속에 실력전의 열풍을 드세게 일구어 혁명사적물보존관리에서 나서는 절박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혁명사적물종합보존실안에 자동온습도측정 및 감시체계를 확립한 과정을 놓고보아도 그렇다.

그전까지만 하여도 표준조작법대로 공기조화장치를 운영한다고 하였지만 적지 않게 직작으로 하다나니 리상적인 온도와 습도가 보장되지 못하고있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김철, 조근식, 전창남동무를 비롯한 종업원들이 실력전의 마당에 뛰여들어 해당한 기술혁신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밀리도록 떠밀어나갔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 공업시험소 기술자들과의 적극적인 련계를 지어주기도 하였다. 마침내 100여점의 혁명사적물들이 보존되여있는 혁명사적물종합보존실의 온도와 습도를 리상적으로 보장할수 있는 기술혁신에서 성공하게 되였다. 자동온습도측정 및 감시체계를 혁명사적물보존관리사업에 도입한 김철동무를 비롯한 종업원들도 기술혁신증서를 받게 되였다.

리인정, 변광만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은 콤퓨터에 의한 혁명사적물종합보존관리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고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도 혁명사적부문 당조직들이 혁명사적물보존관리사업을 당적으로 이끌어나가는데서 과학기술에 얼마나 큰 힘을 넣어야 하는가를 다시금 깊이 절감하게 된다.

본사기자 리정수

혁명사적관에서 —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깊이 새겨가고있다. — 황해남도 혁명적구호문헌을 통하여 항일혁명선렬들이 발휘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과감한 공격정신과 청춘의 기백으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하여야 합니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일 불타는 열의를 안고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 일군들과 지휘관들, 돌격대원들이 총돌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천군만마와 같은 폭풍기상으로 탕이 부르는 가장 어렵고 힘든 전구마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는 이들의 투쟁모습은 참으로 고결하다.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 일군들과 지휘관들이 총돌격전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책임일군들인 김영철, 리영환동무들은 모든 사업을 통이 크고 대담하게 설계하면서 대오를 이끌어나가는 기관차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나가고있다.

특히 만리마시대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려명거리건설을 최단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끝내기 위한 영예로운 전투에서 청년돌격대원들이 우리 당이 안겨준 비약의 나래를 펴고 다시한번 세계를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통이 크고 능숙하게 짜고들었다.

제11려단 려단장 임용식동무는 심한 병으로 치료를 받고있는 상태였지만 비상한 의지를 안고 불사신마냥 일어나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오늘의 총진군의 앞장에서 려단앞에 맡겨진 물동수송전투계획수행에로 려단의 돌격대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제8려단 자재부참모장 박남철동무는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대상공사에 절실히 필요한 블로크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수백㎡의 부지에 년간 15만장 생산능력의 합형블로크생산기지를 자체의 힘으로 꾸려놓음으로써 공사기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동력설비수리대 대장 최영식동무 역시 공사수행과정에 남은 자투리철근들로 층막지지대를 제작함으로써 많은 목재를 절약하고 대상공사장들에서 목재의 존도를 현저히 낮출수 있게 하였으며 제8려단 려단장 김영원동무는 자체로 혼합물압송기를 제작함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이 신작치의 모범으로 완강하게 실천하여 끝끝내 완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한 제3려단 부업중대장 리광영동무는 자체의 힘으로 많은 량의 비료와 석회를 구입하여 올해농사준비에 적극 기여하였으며 부업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1.4분기에만도 1톤이상의 고기와 버섯, 온실남새를 생산하여 청년돌격대원들의 후방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최상의 수준에서 단숨에 집행하는 인민군대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당의 방침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철저히 관철하는 결사관철의 기풍은 지도국안의 청년돌격대원들속에서도 높이 발휘되였다.

제12려단 2대대 대원 장철동무를 비롯한 9명의 돌격대원들은 만리마기수, 만리마선구자의 영예를 높이 떨쳐갈 불타는 열의를 안고 매일 작업시간이후 2시간씩 다음교대의 채굴작업을 도와주는 기풍을 발휘하여 대대가 석탄생산계획을 날마다 넘쳐 수행하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제11려단 1대대 대원 리동철동무는 전투과제를 수행하는 바쁜 속에서도 고장난 차를 스스로 맡아안고 짬시간을 내여 수리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들을 자체로 구입하여 원상복구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제1려단 대원 김성국동무는 선전선동수단을 현대적으로 완비하기 위하여 수많은 방송설비와 무분품을 자체로 마련하여 만리마속도창조에로 전투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동력설비수리대 대원들인 박현, 김국철동무를 비롯한 5명의 청년돌격대원들은 자강력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40㎜철판을 절단할수 있는 플라즈마절단기를 제작완성함으로써 많은 량의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공사속도를 훨씬 높이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이밖에도 제7려단 3대대 대원 홍영동무가 전양기자동조종장치를 연구완성하여 공사속도를 훨씬 높인것을 비롯하여 많은 청년돌격대원들이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과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새기적, 새 기록을 련발적으로 창조하기 위한 맹렬한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켰다.

청춘의 기백이자 약동하는 우리 조국의 기상이고 청년대오의 전진속도이자 백두산대국의 힘찬 진군속도이다.

지금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안의 전체 일군들과 지휘관들, 돌격대원들은 당의 원대한 구상을 맨 앞장에서 빛나게 실현하는 선군청년전위대오, 힘있는 로력부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심장깊이 새겨안고 대고조격전장마다에서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영웅청년신화들을 끊임없이 창조하여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떳떳이 들어설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본사기자

## 승리의 대회장으로 보무당당히

### ◎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 일군들과 돌격대원들 ◎

## 다수확운동의 앞장에 설 열의안고

### 태천군 취흥협동농장 제2작업반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협동농장들에서 실천을 통하여 우월성이 확증된 앞뒤그루와 겹재배에 의한 두벌농사, 세벌농사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알곡 대 알곡, 알곡 대 감자를 기본으로 하면서 알곡 대 남새, 알곡 대 공예작물재배를 과학적으로 알심있게 하여 토지리용률과 농사의 집약화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태천군 취흥협동농장 제2작업반의 농장원들이 농업전선에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고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렸던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을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 성과를 거두고있다. 특히 지난 시기 겹재배에 의한 두벌농사를 진행하던 포전들의 이랑방향을 실정에 맞게 다시 정하여 소출을 높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이곳 작업반원들이 다시금 새겨안은것은 무엇인가.

두벌농사, 세벌농사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토지리용률과 농사의 집약화수준을 높일데 대한 당의 뜻을 되새겨볼수록 작업반장 리용남동무의 생각은 깊어졌다.

(올해에도 해비침률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당이 제시한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할수 없지 않는가.)

그의 생각은 지나해나 겹재배를 맡아들인 포전들에서의 해비침률문제에서 떠날줄 몰랐다.

사실 작업반에서는 강냉이대 콩 겹재배에 의한 두벌농사를 많이 하고있었다. 그런데 키큰 강냉이의 잎이 해빛을 가리워 콩이 빛합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것이 문제였다. 뿐만 아니라 강냉이도 해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있었다.

해비침률이 낮다나니 콩이나 포전가운데 있는 강냉이의 빛합성능력이 떨어져 생육에 지장을 주었다. 이것은 천알질량을 늘이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였다. 결국 이런 조건에서 해마다 겹재배에 의한 두벌농사를 하다보니 더 거둘수 있는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었다.

작업반적으로 이런 포전이 수십정보나 되였다. 현실은 이 문제를 풀어야 당의 뜻대로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릴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작업반초급일군들은 관리위원회의 기술적지도밑에 실정에 맞는 방법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집체적토의를 거듭하였다. 그 과정에 지대적특성과 해비치는 방향을 고려하여 이랑을 다시 내는 방법으로 해비침률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지난 시기에는 이랑방향을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지 못하다나니 해빛이 포전의 구석구석까지 비칠수 없었다. 그러나 해비침조건을 고려하여 이랑방향을 돌리면 해빛이 전반적인 포전들에 비쳐들어 농작물이 빛합성을 잘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보장할수 있었다.

다수확운동의 앞장에 설 열의안고 작업반원들은 짧은 기간에 이랑을 다시 내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관리위원장 김철원동무를 비롯한 농장일군들은 당의 뜻대로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려 올해 알곡생산에서 기어이 풍작혼을 부르자고 작업반원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작업반원들은 한알의 낟알이라도 더 생산하여 나라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할 애국의 일념으로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짧은 기간에 수십정보에 달하는 포전의 이랑을 다시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해비침률문제를 해결한 결과 두벌농사포전들에서 정보당 소출을 높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자기 사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늘 사색하며 영농방법을 실정에 맞게 부단히 개선하여 알곡생산을 높일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는 이곳 작업반초급일군들의 일본새는 얼마나 혁신적인가.

본사기자 김강철

## 후대사랑의 뜻 정히 받들어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뜻을 정히 받들어 조국의 미래를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쌓그리 바쳐나가고있는 사람들속에는 개천탄광유치원 원장 리금란동무도 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이곳에서 일해온지도 어느덧 35년이 되였다.

그는 조국의 밝은 미래가 바로 자기들, 유치원교양원들에게 달려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불같은 열정을 발휘하여 여러개의 새 교수방법등록증과 교편물창안증을 수여받았으며 10월8일모범교수자가 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유치원의 교육환경을 일신시킬 높은 목표를 세운 그는 교양원들을 발동하여 일관을 통이 크게 벌려나갔다.

그러나 자체의 힘으로 유치원을 개건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그는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뜻을 실천으로 받들려는 신념이 투철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각오를 안고 신발창이 닳도록 뛰여다니며 필요한 자재를 구해오기도 하였다. 하여 6개월후에는 유치원의 면모가 일신되였다.

어린이들에게 색에 대한 상식과 아름다운것에 대한 료상을 심어주기 위해 복도와 계단의 벽체에 동화그림들을 그려넣게 하였다. 종합모형사관과 군사놀이터 등 교육환경을 어린이들의 지능계발에 이바지할수 있게 꾸린 유치원은 그 어디에 내놓아도 흠잡을데가 없다.

그의 헌신성은 교양원들을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되였다. 지난 2월 유치원은 2중영예의 1월 25일모범유치원이 되였다.

로농통신원 전순희

## 모두다 선군시대공로자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 사랑과 헌신으로 조국을 받드는 길에 참된 삶의 보람이 있다

### 선군시대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락랑구역가내축산관리위원회 위원장 리숙희동무

《직장직위-부양》

그들의 직업란에는 이렇게 씌어있다. 바로 그들이 지난 20여년동안 1 600여t의 돼지고기를 생산하여 구역주민들과 전쟁로병, 영예군인들, 인민군군인들과 돌격대원들에게 보내주었다.

누군가 말했었다. 녀성은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우리는 오늘 이들을 두고 새롭게 말하려고 한다.

가사우에 국사를 놓을줄 아는 녀성은 어머니보다 강하다!

우리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처럼 강한 녀성들의 관리위원장, 선군시대공로자의 영예를 지닌 락랑구역가내축산관리위원회 위원장 리숙희동무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녀성들은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입니다.》

온실의 꽃처럼 한가정의 울타리에서만 맴돌던 가정부인들과 함께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고 한평생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들의 념원을 꽃피우기 위하여 가정의 행복도 사랑도 아낌없이 바쳐온 리숙희동무, 그의 삶은 이 나라 녀인들의 가슴속에 다시금 새겨주고있다.

어머니의 행복은 무엇인가?

## 옛 속도전청년돌격대 부소대장

주체81(1992)년 5월 6일부 《로동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리였다.

《새로 일떠선 룡일거리에서 생활이 꽃피기 시작하였다. …

매집마다 해빛이 골고루 잘 비쳐들고 살림방, 부엌, 목욕탕, 위생실, 창고, 베란다 등 생활을 위생문화적으로 할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있었다. 이렇듯 훌륭한 집에 이사를 한 사람들은 평범한 자기들에게 무상으로 이런 좋은 집을 안겨준 당의 은덕에 고마움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새집들이기쁨에 넘쳐있는 사람들속에 시부모와 아들딸을 거느린 가정의 주부 리숙희동무도 있었다. 그날밤 세대주인 김용철동무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인민반생활에서 모범을 보이오. 나도 더 많은 일을 할테요.》

새 집에서 두번째 설을 맞은 해 그에게 충성1동 사무장이 찾아왔다.

《다른 동들에서는 벌써 가내축산을 시작했소. 농촌과 가까운 조건을 리용해서 말이요. 한번 해보지 않겠소? 옛 속도전청년돌격대 부소대장동무!》

사무장은 세대주와 잘 토론해보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다. 그랬으나 리숙희동무의 귀전에서는 그냥 그의 목소리가 맴돌고있었다.

옛 속도전청년돌격대 부소대장!

가슴이 부풀어올랐다. 잊을수 없는 돌격대시절이 눈앞에 떠올랐다. 동지의 귀중함과 로동의 참된 보람을 가슴에 새긴 시절이였다. 창광원과 창광거리, 김덕광연련합기업소 제3선광장… 로동당시대를 노래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설 때마다 그는 성장했다. 그 나날에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도 지니였다. …

《옛 청년돌격대 부소대장이 이제야 때깔에 맞는 일감을 찾았구만. 한번 본때있게 해보오. 당신이야 남에게 지는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요.》

그날밤 이렇게 말하는 세대주에게 리숙희동무는 말하였다.

《축산이 건설과 같은줄 아세요? 생물체를 다루는 일인데.》

동사무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가 직접한것이 바로 이것이였다. 돼지우리를 짓는것은 문제가 아니였다. 건설자재는 머리를 쓰면 해결할수 있었고 건설도 자체로 할수 있었다. 새끼돼지도 가정에서 저축했던 자금으로 마련할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언제 돼지를 길러봤던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그는 잠들수 없었다. 멀스레 천둥이 치고 대즐기같은 소낙비가 쏟아져내린 밤이였다.

바로 그 다음날 리숙희동무는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접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천만뜻밖에도 서거하시였던것이다.

때늦은 후회가 량심의 회초리가 되여 심장을, 가슴을 내리쳤다.

그는 당조직을 찾아갔다. 피눈물을 쏟으며 맹세했다. 손끝이 모지라지도록 축산을 해서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을 꽃피우리라고.

10여명의 가정부인들로 충성1동가내축산작업반이 조직되였다. 그를 반장으로 임명했다.

아버지를 잃고 철드는 자식처럼 리숙희동무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였다.

선교구역과 락랑구역에 있는 세멘트창고들은 다 돌았다.

20여개의 수매소들을 찾아다니며 파헤쳐미속에서 수의 쉴근을 얻어냈고 건설장들에서 3 500여장의 파벽들을 모았다.

그렇게 얻은 자재들을 작업반로력으로 운반해왔다. 낮과 밤이 따로 없었다. 기초를 파고 돼지우리벽을 쌓고 지붕을 씌우고…

그렇게 애쓴 끝에 돼지우리와 먹이가공실을 갖춘 350㎡짜리 축산기지가 일떠섰을 때 리숙희동무는 또다시 길을 떠났다. 새끼돼지를 한시바삐 구해와야 했던것이다. 그날은 삼복의 무더위가 가셔지지 않은 8월 어느날이였다.

축산기지를 일떠세울 때부터 띠끔띠끔하던 열구리의 종처가 독을 쓰기 시작했다. 얼굴까지 벌겋게 달아오른 그의 앞을 막아서며 작업반원들이 하루이틀 할 일도 아닌데 며칠 안정하고 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리숙희동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심장속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었다.

(우리 기어이 당창건기념일에 동주민세대들에 우리가 생산한 고기를 안겨주자요.)

끝내 작업반에서는 1년만에 2t 700여kg의 돼지고기를 생산했다.

《이 고기가 우리 동가내축산작업반에서 생산한것이래요.》

《돼지를 기른다기에 원칙했었는데 정말 면목이 없군요.》

식료상점에서 고기를 공급받으며 주민들이 주고받는 말이였다.

그 말을 듣는 리숙희동무의 마음속에는 잊지 못할 나날이 떠올랐다.

새끼돼지까지 우리에 넣고 보니 먹일것이 문제였다. 국가에서 공급받는 사료는 없었다. 사료기지도 없었다. 있다면 작업반식료가공기지에서 나오는 쌀겨나 두부를 만들 때 나오는 찌끼가 전부였다. 주민세대들에서 나오는 뜨물을 리용해야 했다.

마가을바람이 불던 어느날 뜨물통을 실은 손수레를 쥐고 어느 한 아빠트마당에 선 33살의 녀인. 입속에서는 《뜨물을 내려보내주세요.》하는 소리가 얼번도 더 맴돌았다. 눈을 꼭 감고 입을 열어보았지만 소리가 나가지 않았다. 다음, 그 다음아빠트에서도 그는 끝내 뜨물을 모을수 없었다.

다음날 그는 또다시 손수레를 끌고 나섰다. 이번에는 집집의 문을 두드리며 《뜨물받읍시다.》라고 했다. 상냥스레 대하는 녀인, 뚜하게 대하는 녀인, 새벽잠을 깨운다고 귀찮아하는 녀인 등 각양각색의 대접을 받은 리숙희동무의 머리속에는 이 일을 끝까지 할수 있을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바로 그런 그를 동사무장이 또다시 찾아왔다. 그날 동사무장은 그의 손에 작은 종을 쥐여주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당 제4차대회 대표들중에는 함흥시의 어느 한 상점판매원도 있었지. 그로 말하면 새벽종소리를 울리며 주민들에 대한 식료품이동판매를 잘하여 전국천리마작업반운동선구자대회에서 토론한 녀성이였소. 어느날 당대회대표들이 든 려관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녀성을 알아보시고 지금도 종을 치면서 이동판매를 계속 하는가고 물으시고 그를 높이 평가해주시였소. 젊은 나이에 뜨물모으러 다니기가 창피할수도 있고 마음아플 때도 있을거요. 그때마다 이 종소리를 울리라구. 우리 수령님께 기쁨을 드렸던 새벽종소리를 말이요.》

그때부터 충성1동관내에서는 아침마다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였다. 종소리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울렸다. 충성의 다리를 건너 청천구역의 아빠트들에서도 새벽종소리가 울렸다.

새벽종소리를 울리며 리숙희동무는 과연 무엇을 생각했던가.

우리는 여기에 그의 일기장에 적힌 글 한토막을 전한다.

《혁명가의 량심, 교육자의 량심, 로동계급의 량심…

많은 사람들이 량심에 대해 말해왔다. 요즈음 나는 어머니의 량심에 대해 생각해본다. 아니 새벽종소리가 나에게 묻는것만 같다. 어머니의 량심은 무엇인가. 만일 나의 가정만을 위해 배심을 들여 식락을 풍성하게 했다면 나의 마음이 이다지도 가벼울수 있을가? 나의 노력으로 우리 동주민들의 식락이 더 풍성해진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더욱 가볍다. 자기 가정보다 먼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어머니의 량심이 아닐가.》

## 어머니는 대학공부를 한다

새벽 4시면 리숙희동무는 어김없이 자리에서 일어나군 했다. 그때 집을 나와 마지막돼지먹이를 주고 집에 들어갈 때까지 그는 앉아있은적이 없었다.

작업반인원이 10여명이라고는 하지만 식료가공을 하는 성원들을 내놓으면 돼지를 돌볼 사람은 리숙희동무까지 3명이였다. 하루에 대여섯번씩 먹이를 끓이고 돼지목욕을 시키고 돼지우리를 청소하고 그 여가시간에는 축산학공부를 했다. ㄷ자형돼지우리가운데 앉어 옷을 파서 앉어까지 했다.

그래도 그는 힘든줄 몰랐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충성1동에서는 동가내축산작업반에서 생산한 돼지고기로 주민공급을 하였다.

하지만 축산이란 욕망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였다.

어느 겨울날이였다. 여느날과 마찬가지로 이른새벽 축산기지에 나와 돼지우리를 돌아보던 리숙희동무는 깜짝 놀랐다. 종자돼지 한마리가 사람이 잘기침을 깊숫 깨깨하며 몸을 떨고있었다.

당황해지는 마음을 누르며 그는 언제인가 수의사를 청해왔던 일을 생각해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돼지의 증상도 그때와 같았다. 그는 돼지귀를 잡고 혈관을 찾아 항생제를 주사했다. 그리고나서 한동안 지켜보는데 갑자기 종자돼지가 온몸을 떨더니 털컥 죽고말았다. 억이 막혀 눈물이 다 났다. 사실 대여섯kg나갈 때 얻어온 그 종자돼지를 리숙희동무는 안고키우다싶이 했다. 그러던 종자돼지가 죽었으니 말 못하는 짐승이라지만 야속스러웠다.

후에야 리숙희동무는 돼지가 죽은 원인을 알았다. 종자돼지는 혈관주사부작용으로 죽었던것이다. 주사액을 덤허아 했다. 치료원리는 사람과 같았다.

이 일을 계기로 리숙희동무는 모르고서는 아무 일도 할수 없다는것을 절감했다. 그는 구역당책임일군을 찾아갔다. 속생각을 털어놓았다. 구역관내 가내축산을 당적으로 힘있게 떠밀어주던 구역당책임일군은 그의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다.

며칠후 정양농업대학(당시) 통신생입학을 위한 시험장에는 리숙희동무가 앉아있었다.

대학일군이 그에게 물었다.

《41살에 그것도 가정부인이 대학생이라. 뭐 대학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일군에게 리숙희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첫째로는 제가 가내축산을 하고있기때문이며 둘째로는 두자식의 어머니이기때문입니다. 2000년대가 아닙니까. 새 세기 나라의 역군이 되여야 할 자식들의 는가에 실력으로 당을 받드는 어머니의 모습을 새겨주고싶습니다.》

리숙희동무는 이렇게 가정부인 대학생이 되였다.

통일거리한끝에서 룡성구역에 있는 대학까지의 등교길은 멀다. 그것도 한겨울에 강의시간전까지 도착하려면 집에서 보통 새벽 4시에 길을 떠나야 했다.

하지만 사나운 날씨도, 먼 등교길도 향학열에 불타는 리숙희동무에게 장애로 될수 없었다. 해면이 물을 빨아들이듯 그는 대학에서 보고 듣는 모든것을 머리속에 속속 새겨넣었다.

밤이면 학교에 다니는 자식들과 함께 두리반에 마주앉아 복습과 예습과제를 수행했고 과제서를 작성했다.

오늘도 대학일군들은 잊지 못하고있다.

졸업시험장에서 문제에 대답을 하면서 중요한것은 돼지사양공의 정성이 명약중의 명약이라고 이야기하던 그의 모습을.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였다. 수의축산기사가 된것이다. 대학졸업후에도 그의 향학열은 조금도 식지 않았다.

어느날 텔레비죤에서 정향목 합금이 소개되는것을 보게 된 그는 그길로 국가과학원을 향해 떠났다. 아닌 밤중에 나타난 녀인의 이야기를 들은 과학자는 녀인을 따라나섰다. 가정부인이라고 어떻게 집에 앉아만 있겠는가, 우리가 축산을 하여 보탬을 주면 우리 장군님의 어깨에 실린 짐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것이 아닌가고 절절히 호소하는 리숙희동무의 진정이 과학자의 심금을 울렸던것이다.

정양의대대학(당시) 연구사들과의 련계밑에 중소규모도양성미생물정화법을 도입하고 정향목합금을 비롯한 새 기술들을 받아들여 돼지기르기에서 좋은 경험을 창조한 작업반의 모범을 배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나이 60을 바라보는 오늘에도 《대학생》으로 사는 리숙희동무, 이제는 귀여운 자식을 키느린 딸에게 그는 늘 말하군 한다.

과학기술의 시대인 오늘 공민으로서, 한가정의 어머니로서의 첫째가는 본분은 실력으로 당을 받드는 실력가가 되여 자식들의 모범이 되고 자식들모두를 실력가로 키우는것이라고.

## 인민의 충복-우리 대의원

지금으로부터 12년전 리숙희동무는 당의 크나큰 믿음에 의하여 락랑구역가내축산관리위원회 위원장사업을 맡게 되였다. 그로부터 2년후 그는 락랑구역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였다. 선거구 인민들이 너도나도 떨쳐나와 찬성의 한표를 바치는 모습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내가 정말로 저들에게서 찬성의 한표를 받을수 있도록 일해왔던가.

그는 정법한 자기를 한개 단위일군으로, 인민의 대의원으로 내세워준 어머니당을 위해, 고마운 인민을 위해 더 많이 일할 결심을 가다듬었다.

그가 가내축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였을 당시 직속목장에는 7마리의 돼지밖에 없었다. 산자를 얻어 키워를 씌운 종축장은 하늘이 울려다보였다. 미꾸라지서식장으로 꾸렸던 못은 쓸모없는 물웅뎅이로 변해버렸다.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감이 많다고 걱정하는것과 일을 어떻게 할것인가고 걱정하는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전자는 《우국》으로 끝나지만 후자는 애국의 열매를 안아온다.

리숙희동무는 먼저 종축장지붕공사에 달라붙었다. 한쪽으로는 건설자재를 구해들이고 다른 쪽으로는 다공관부재를 생산했다. 그는 집을 잊고 살았다.

직속목장에서 일하는 리명숙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한지에서 밤을 울려다보면서 자며 일했습니다. 새벽 1시까지도 돌아가는 위원장동무를 겨우 눕히고 눈을 붙이느라면 또 일어나고 또 설복하여 눕히면 다시 일어나고. 그때 위원장동무가 그렇게 돌아가니 우리가 어떻게 잠을 자겠는가고 했더니 돌격대생활과정에 붙은 버릇이라나요. 정말 무섭게 일했습니다.》

종축장지붕공사를 끝내고는 지하층까지 포함한 3층짜리 돼지우리건설을 또 시작했다. 그것을 끝내고는 가금까지 할수 있는 2층짜리 돼지우리를 건설했다. 또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사무실을 건설했다.

무슨 돼지우리를 계속 건설하는가고 하는 사람들에게 리숙희동무는 말하였다.

《인민군대를 원호하는거야 공민으로서 응당 할 일이 아니예요. 그런데도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감사를 보내주시고 국가수훈도 세주도록 하시였어요. 우리 원군을 더 통이 크게 하자요. 그러자면 돼지우리가 커야지요.》

관리위원장이 더 많은 돼지를 맡아 길러야 한다는것이 그의 생각이였다. 동가내축산작업반들에서 기르던 돼지들을 다 목장에서 기르게 되여 돼지마리수는 때로 늘어났다. 그는 아침무터 저녁까지 돼지우리에서 살다싶이 하였다.

아침이면 돼지들을 한마리한마리 관찰을 한 다음 그에 맞는 예방과 치료대책을 세우는것이 그의 첫 일과이다. 그것이 끝나면 사양공들과 돼지우리청소를 하고 돼지목욕을 시키고 먹이를 주고 그렇게 3~4시간 지나면 그 과정을 다시 반복하고 또 점심의 여가시간에는 사양공들의 돼지기르기와 관련한 학습을 방조한다.

그에게도 가정이 있다. 오랜 병환으로 누워있는 시아버지와 늙은 몸으로 아들, 며느리와 손녀의 뒤바라지를 말없이 해주는 시어머니, 언제나 그를 리해해주고 도와주는 세대주, 군대에 나간 아들과 시집살이를 하는 딸…

그의 손을 기다리는 가족들이였다. 그의 정을 그리워하는 혈육들이였다.

몇해전 구역에서 공로자들로 금강산견학을 조직한 일이 있었다.

그때 리숙희동무는 구역일군에게 이렇게 물었다.

《저 미안한 일인데 혹시 저의 딸도 함께 가면 안되겠습니까?》

의아해하는 일군에게 리숙희동무가 눈물이 글썽하여 한 말.

《우리 금실이가 아이어머니가 되도록 언제 한번 살뜰히 함께 있어본적이 없어서…》

명절날도 휴식일도, 가족들의 생일날도 늘 돼지우리에 나가 산 그였다.

그에게 늘 힘을 주고 많은 일을 도와주던 세대주가 갑자기 사망하였을 때 리숙희동무는 가슴이 무너져내리는것 같았다.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정을 한껏 나누며 재미나게 살고싶었다.

리숙희동무 (오른쪽에서 두번째)

할머니와 아버지손에서 자란 아이들에게도 어머니정을 쏟으며 살고싶었다. 그런데 그 정을 받아주지 않고 가버린 남편이 원망스러웠다. 그에게 미안했다.

사실 그는 가슴속에 불덩이를 안고사는 녀성이였다.

그와 함께 오래동안 일한 충성1동가내축산작업반 반장 김춘선동무는 말하였다.

《가정부인들을 데리고 일하다나니 제기되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였습니다. 오늘은 누구 아들이 인민군대에 나가고 래일은 누가 위탁이 도지고 또 모레는 어느 사양공이 병원으로 실려가고. 그때마다 위원장동무는 제일처럼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수훈이 제기되였을 때 리숙희동무가 구역당일군들을 찾아다니며 내가 혼자 일했는가, 우리 동무들이 함께 일한것인데 하며 끝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한 사실을 뜨겁게 이야기했다.

리명숙동무도 눈물속에 이야기했다.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품겉에도 묻고싶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고나서 저는 밤새 울었습니다. 자기대신 나의 등을 떠밀며 대회기간 많은것을 배워오라고 그 준비까지 하나하나 해주던 위원장동무가 생각나서 말입니다. 고생은 제가 다 하고 영광의 자리에는 우리를 내세워주니 이런 일군과 함께라면 무슨 고생인들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고기생산 1 600여t, 새끼돼지생산 21 000여마리, 그중 주민공급 1 100여t, 인민군대원호 200여t, 중요대상건설지원 80여t, 구역살림에 50여t 기여, 돼지를 기르는 과정에 나오는 2만여t의 돼지거름을 주변농장들에 운반…

규모가 어지간한 돼지공장의 년간 고기생산량이 수백t이라고 볼 때 이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한것으로 되는가. 하나의 돼지공장을 운영한것이나 같은 큰 리익을 국가에 준것이다. 이런 장한 일을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깨끗한 량심, 뜨거운 인정미를 지닌 리숙희동무와 락랑구역가내축산관리위원회 가정부인들이 해낸것이다.

지난 4월 20일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이 새겨진 금반지와 경애하는 원수님의 온정어린 선물을 받아안고 돌아온 날저녁 리숙희동무는 자식들에게 말하였다.

《주민들은 나를 보고 우리 대의원이라고 부른다. 대의원이란 어떤 사람이겠니? 우리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바와 같이 인민의 심부름군, 인민의 충복이지. 이 어머닌 죽을 때까지 그 고마운 사람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못할것 같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식들은 마음속으로 웨쳤다.

세상에서 우리 어머니가 제일이다!

그렇다. 자식들은 사회와 집단의 존경을 받는 어머니를 긍지로 여기며 어머니는 자식들의 존경속에 살 때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속에 선군시대공로자의 영예를 지니고 값높은 인생의 탄생에 오른 리숙희동무의 삶은 이 나라 어머니들의 가슴에 새겨주고있다.

가사우에 국사를 놓고 령도자와 승전을 함께 하며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삶, 수령과 인민이 아는 조국의 참된 딸로 사는데 어머니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림현숙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 재일동포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9일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방문단성원들은 락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로 태양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였으며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 청년돌격대 자력자강성과전시회 진행

청년돌격대 자력자강성과전시회가 청춘거리 체육촌에서 있었다.

전시회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데서 청년돌격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과 8.28청년돌격대관리국에서는 이번 전시회에 모든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을 자강력제일주의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수단 및 교양자료들과 함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의의있는 중요대상건설을 맡아 수행하는 과정에 창안도입한 많은 설비들과 기공구들, 과학기술성과자료들을 출품하였다.

대상건설의 속도와 질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콩크리트압송설비와 나노인조석광력액, 발파유독성카스제거제를 비롯하여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능률적이면서도 실용성있는 건설설비들과 성과자료들도 전시되였다.

돌격대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창안제작한 메아링재생방법, 불순물제거장치, 조립식건물, 다목적증기보이라, 전동모래체 등은 참관자들의 가슴마다에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체질화하고 제힘으로 시련을 뚫고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리를 새겨주었다.

전시회는 만년대계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최대의 속도로 일떠세우는데서 창조한 경험들을 일반화하고 설비들과 기공구현대화에 박차를 가해주는 의의있는 계기로 되였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 청년동맹, 관계부문 일군들, 청년돌격대원들이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 재일동포조국방문단 도착

리광시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29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 재미동포의학자대표단 도착

제19차 국내외동포들의 평양의학과학토론회에 참가할 박기범을 단장으로 하는 재미동포의학자대표단이 29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리혁 조선의학협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맞이하였다.

## 초등학원과 중등학원, 전쟁로병보양소 준공식 진행

### 남포시에서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높은 뜻을 받들고 남포시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초등학원과 중등학원, 전쟁로병보양소를 훌륭하게 일떠세웠다.

항구구역의 양지바른 산기슭에 특색있게 건설된 초등학원, 중등학원은 다기능화, 정보화된 수십개의 교실들과 수십개의 실험실습실, 치료실과 비발실 등이 갖추어진 3층교사와 기숙사, 다기능체육관, 식당, 야외운동장과 수영장 등으로 되여있다.

항구문화도시에 선군시대의 창조물인 초등학원, 중등학원이 훌륭히 건설됨으로써 원아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배우며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역군들로 자라날수 있는 행복의 배움터가 마련되였다.

28일 현지에서 준공식들이 의의있게 진행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건설물의 질을 더 높여 인민들이 현대적이고 편리한 건설물을 리용하도록 하여 모든 건설물이 후세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건물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남포초등학원, 남포중등학원 준공식에는 시안의 일군들과 건설자들, 학원교원들과 원아들, 주민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남포시당위원회 위원장 강양모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뜻에 의하여 단 1년만에 일떠선 남포초등학원과 중등학원은 원아들의 행복의 보금자리라고 하면서 교육조건과 환경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졌다고 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원아들을 사회주의강국의 기둥감들로 억세게 키우시기 위해 각 도들에 교육환경과 생활조건이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진 초등학원, 중등학원을 건설하도록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챙도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남포초등 및 중등학원설계안과 실내형성안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보아주시고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남포시인의 중요공장, 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 대안구역과 온천군 인민들의 백옥같은 충정과 애국적헌신성이 깃들어있는 남포초등학원, 중등학원은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이라고 하면서 연설자는 학원의 설비들을 아끼고 정상유지, 정상관리하며 교수교양사업을 참신하게 하여 원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울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색테프카 늘어지고 꽃보라가 날리는 속에 시민들의 축복을 받으며 원아들이 학원에 들어섰다.

일군들과 원아들은 현관홀에 정중히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작품앞에 꽃다발을 드리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원아들의 얼굴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행복만을 누리며 자라는 끝없는 기쁨과 환희가 어려있었다.

교육학적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진 교실들에서 초등학원, 중등학원 원아들에 대한 첫 수업이 진행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교사와 기숙사, 식당과 운동장, 야외수영장을 돌아보았다.

참가자들은 건축미학적, 교육학적, 위생학적요구가 훌륭히 구현된 건물들과 외랑, 체육시설들과 교재림을 돌아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당의 은정속에 훌륭히 일떠선 학원의 건물들을 돌아보면서 일군들은 건물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주었다.

이날 와우도구역의 양지바른 곳에 자리잡은 남포전쟁로병보양소 준공식이 진행되였다.

전쟁로병들을 금싸래기처럼 아끼고 위해주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에 의하여 일떠선 남포전쟁로병보양소는 로병들의 생활상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줄수 있게 아담하면서도 현대적으로 건설되였다.

모임에서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속에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휘하며 기적을 창조한 시인민위원회 각 부서 일군들과 시청년돌격대원들, 와우도구역 녀맹원들의 로력적위훈이 언급되였다.

참가자들은 훌륭히 꾸려진 보양소의 내부와 외부를 돌아보면서 거창한 변혁의 시대를 안아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인민의 보금자리들이 늘어나는데 대해 격정에 넘쳐 토로하였으며 사회주의문명강국의 체모에 맞는 훌륭한 건축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고 《세상에 부럼없어라》노래소리를 더 높이 울려갈 불같은 결의를 가다듬었다.

특파기자 주창선

## 일본 오사까 일조우호대표단 도착

일조국교정상화 조기실현을 요구하는 시민련대 오사까공동대표 오노 스스무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 오사까 일조우호대표단이 29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 박해철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29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일행 귀국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장율화가족일행이 29일 렬차로 귀국하였다.

이에 앞서 국제주의전사 야.베.노비첸꼬가족일행이 비행기로 갔다.

【조선중앙통신】

## 지자기폭풍에 대한 자료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자기폭풍이 예견되는 날은 다음과 같다.

1일:활성이 약한 지자기폭풍

5일과 6일에는 지자기권의 섭동작용이 있을수 있다.

#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존엄떨치며 최후승리에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설계도따라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 아침과 저녁이 다른 눈부신 기적과 혁신창조의 불길로 들끓는 내 조국이 전세계근로자들의 명절인 5.1절을 눈앞에 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당과 인민의 크나큰 믿음을 명심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장성강화되여온 주체혁명의 선봉부대, 나라의 맏아들답게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할것입니다.》**

세월은 멀리도 흘렀다.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강요하는 지배계급을 반대하여, 8시간로동제를 요구하여 피흘려 싸운 시카고로동자들의 투쟁도 오래전의 일이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백수십년이 지난 21세기에도 세계의 도처에서는 이런 웨침이 끊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우리는 더이상 노예가 될수 없다.》, 《우리는 99%이다.》, 《일자리를 달라.》, 《생존권 보장하라.》…

하다면 내 조국땅에서는 과연 어떤 현실이 펼쳐지고있는것인가.

여기에 이런 자료가 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 학생들 수만명가운데 절반이상이 로동자!

참으로 극적인 대조이다. 《문명》과 《민영》을 떠드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실업자가 늘어나고 초보적인 생존권과 일자리를 위해 시위에 나서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 때 사회주의조선에서는 로동자대학생들이 늘어난다.

이것이야말로 장구한 력사를 통하여 전세계로동계급이 갈망해온 자주적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내 조국땅에서 어떻게 빛나고 어떻게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고있는가를 웅변으로 보여주는 현실이다.

겉교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절로 펼쳐진것이 아니다.

해방전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아무러한 보호시설도 없는 곳에서 매일 고역을 치르면서 극도의 비인간적로동생활을 강요당했던 조선의 로동계급.

이런 수난의 력사가 영영 끝장난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의 혁전만리를 헤치시며 조국해방을 안아오신 때부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된 새 조선의 첫 기슭에서 당을 창건하신데 이어 광범한 로동계급을 망라하는 유일적인 정치조직인 북조선로동조합총련맹을 결성하시고 제일 첫 조항에 8시간로동일제정을 밝힌 력사적인 로동법령을 발표하심으로써 우리 로동계급은 자기의 진정한 존엄을 찾고 자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며 력사를 선도해나가는 힘있는 혁명력량으로서의 발걸음을 내짚을수 있었다.

새 조국건설시기 방방곡곡에서 높이 울려퍼진 우리들은 로동법령 새날을 찾고 증산경쟁한말으로 달리는 전사라는 힘찬 노래소리는 그대로 위대한 태양의 품속에서 인간의 참된 존엄과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며 조국번영을 위한 창조의 나래를 마음껏 펼쳐나가는 조선로동계급의 심장의 웨침이였다.

하기에 우리 로동계급은 침략자 미제가 일으킨 전쟁의 불길속에 모든것이 재더미로 변했던 이 땅우에 단 3년동안에 벌써 전쟁전 수준을 넘어선 공업을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했다.

년대와 년대를 이어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변혁의 창조자들로 성장한 우리 로동계급의 투쟁기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것은 자력자강의 정신이였다.

우리 로동계급이 집단주의위력을 높이 발휘하며 이 땅우에 자립의 무쇠기둥을 더욱 억세게 세워나가던 천리마대고조의 거세찬 불길,

유럽의 어느 한 나라 작가, 기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론문 《사회주의조선》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이 시기는 천리마운동이 벌어지고있던 시기였으므로 군중의 불타는 기세는 불과 몇달동안에 전국적으로 1 000여개의 지방공장들을 새로 일떠세웠다.… 이렇게 하여 건설된 공장들에서는 많은 량의 각종 소비품들을 생산할수 있었다.》

필자들은 론문에서 자기들이 조선에 온 기회에 어느 한 편직물공장에서 복잡한 현대적기계들을 보았는데 이 기계들을 지방의 로동자들자신이 생산하였다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통역을 잘못하지 않았는가고 의심하였다고, 지배인이 가리킨 곳에서 국내산 용선로와 방금 본 기계들의 주형들을 실제로 볼수 있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형태의 기계들을 제작할수 있은것은… 자력갱생의 정신이었기때문이다.》라고 썼다.

이렇듯 천리마조선의 현실을 목격하면서 세상사람들 누구나가 찬란한 자력자강의 선구자들도 다름아닌 우리 로동계급이였고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들어 사회주의건설과 반미대결전에서 위훈을 떨치는 승리적진군의 앞장에도 우리 로동계급이 변함없이 서있었다.

오늘 우리 로동계급이 과학자, 기술자들과 지혜와 힘과 열정을 합쳐 만든 우리의 비행기가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날고 또 그렇게 태어난 우리의 인공지구위성이 무변광대한 우주로 솟구쳐올랐으며 우리 로동계급이 필승의 기상에 넘쳐 천만대적도 두려움없는 막강한 전쟁억제력을 억척같이 다진 격동적인 현실앞에서 더욱 가슴뜨겁게 되새기게 되는것은 무엇인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장성강화되여온 로동계급이 혁명적인 사상의식과 함께 과학기술이라는 무기를 틀어쥔 부강조국건설의 핵심력량으로 더욱 튼튼히 자라날수 있는 활무대를 활짝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숭고한 믿음과 사랑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길수 있는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 인재강국화실현에서 무엇보다 로동계급을 과학기술인재화해야 한다는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진정 여기에는 가렬한 전화의 나날에 승리할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시며 세상에서 처음으로 일하면서 배우는 새로운 교육형태인 공장대학을 내오도록 해주시고 사회주의건설의 심화발전과 더불어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위한 국가적시책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도록 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이 빛발치고있다.

해빛찬란한 이 땅에서 광명한 미래를 내다보며 학습열풍, 과학기술열풍을 일으켜가는 온 나라 로동계급의 기쁨은 끝없다.

당의 손길아래 과학기술전당이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다기능화된 전민학습의 대전당으로 환희롭게 솟아오르고 이르는 곳마다에 과학기술보급기지들이 훌륭히 꾸려졌으며 각지 대학들에 원격교육대학들이 나와 배움의 나래를 더욱 활짝 펼쳐주고있다.

이렇듯 영원한 태양의 빛발따라 시대의 영웅으로 억세게 성장하고 력사의 소용돌이속에서도 그 어떤 변색을 모르며 오로지 충정의 한길로만 달려왔고 세기를 이어 더욱 승승장구하는 주체의 사회주의와 더불어 끊없이 힘을 키우고 비약해온 조선로동계급의 심장속에 신념의 메아리가 차넘친다.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

우리 당이 안겨준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떠나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의 앞장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는 우리 로동계급의 자랑찬 오늘도, 찬란한 래일도 있을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시대적임무와 직맹조직들의 과업》**을 필승의 대강으로 높이 추켜든 우리 로동계급, 뜻깊은 올해의 태양절을 맞으며 년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금률의 고경찬현용소대원들에게 보내주신 절세위인의 축하전문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자력자강의 배심든든히 전단적경쟁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가는 우리 로동계급의 신심과 락관은 하늘에 닿고있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의 령도, 위대한 당의 손길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핵심부대로 위력떨치는 조선로동계급의 유일무이한 생명선이며 영원한 피줄기이다.

하기에 우리 로동계급은 누구나가 한목소리로 웨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로동계급,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동계급이다!

이 무한한 영광과 긍지로 심장을 끓이며 주체혁명의 선봉부대, 나라의 맏아들답게 총진군대오의 기관차가 되여 최후승리에로 질풍같이 전진하는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앞길은 끊없이 눈부실것이며 조선의 5.1절은 영원한 승리의 5.1절로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오 철 룡

## 소백수골8경
# 사시장철 흐르는 소백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소백수골안에 흐르는 물이 깊지도 않고 아주 깨끗합니다. 소백수가 겨울에도 얼지 않으면 좋습니다.》**

천하제일 정일봉을 감돌아 사시장철 흐르는 소백수의 용용한 흐름은 소백수골의 이채로운 풍치를 돋구어주는 절경의 하나이다.

정갈한 백설이 강산을 뒤덮은 엄동설한에도 끊임없이 흘러흐르는 소백수는 혁명의 넋을 간직한 력사의 물줄기, 백두의 정기와 천지조화가 비껴있는 신비로운 물줄기이다.

소백수라는 이름은 소백산을 감돌아흐른다는데로부터 나온것이다.

소백수의 길이는 15.1km이며 백두산밀영고향집앞을 지나서부터 2km구간을 남서방향으로 흐르다가 금산과 사자봉사이로 흐르는 지류와 합류한다.

백두산천지에 수원을 두고있는 소백수는 땅속으로 흐르다가 신비하게도 소백수골부근에서 솟구쳐 백두산밀영고향집을 감돌아흐르며 한겨울에도 얼지 않고 물이 수정과 같이 맑아 물속의 작은 모래알도 다 들어다보인다.

새 싹이 움터나고 철새들의 우짖는 소리 유정한 봄풍경과 화려한 꽃바다우에 온갖 벌과 나비들이 날아드는 여름풍경, 제비들이 강남으로 떠나고 물오리들이 찾아오는 가을풍경과 아름다운 서리꽃이 만발한 겨울풍경과 같이 소백수의 사계절풍경은 참으로 매혹적이다.

주체25(1936)년 9월 21일 소백수가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백수물은 수정같이 맑고 순결하다고 하시면서 사시장철 쉬임없이 흘러내리는 이 소백수의 물에는 우리 민족의 강의한 의지와 순결하고도 깨끗한 향심이 그대로 담겨져있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우리 혁명의 자랑찬 행로를 감회깊이 돌이켜보시면서 우리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사시장철 쉬임없이 흘러내리는 소백수의 저 맑고 순결한 물처럼 변함없는 혁명적량심과 의리,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가지고 혁명의 한길을 억세게 걸어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력사의 그날 소백수골안에는 류다른 자연경치가 펼쳐지고 2월의 혹한속에서도 소백수는 정다운 물소리로 조선의 새봄을 알리였다.

정일봉의 웅장한 자태를 비껴탔고 용용히 흐르는 소백수, 백두산밀영고향집에 넘치는 따스한 봄빛을 그대로 안고 흐르는 소백수…

오늘도 사시장철 흐르는 소백수의 푸른 물은 백두산혈세위인들의 성스러운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순결한 마음과 억센 기상을 안고 끝없이 굽이쳐 흐르고있다.

사회과학원 실장 김 래 식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력명거리의 새 집들을 받아안고 너무 좋아 어쩔줄 모르는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뜻깊은 4월의 하늘가에 끝없이 메아리치고있다.

사람들은 흔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혈연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제일 가까운 사람들부터 생각한다.

하다면 교원, 연구사들을 비롯한 평범한 근로자들이 현대적인 새 살림집들에 행복의 보금자리를 편 지금 그들의 가슴속에 고패치는 생각은 과연 무엇이던가.

## 수필
# 새집들이하는 날에

새집들이하는 날에 우리와 만난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리진주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들의 새집들이를 축복해주시는것만 같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살림집을 안겨주시려고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최한하게 일떠선 려명거리를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으랴 하는 생각에 우리의 가슴도 뜨겁게 젖어들었다.

분명 우리의 머리속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생활하신 작고 소박한 저택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른다.

언제가 한 일군이 위대한 수령님께 지금 리용하시는 저택이 지은지 오래 되고 작아서 다시 꾸릴것을 말씀드렸을 때 아직은 우리 인민들의 생활도 그리 풍족하지 못하고 나라에 돈도 많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요란한 집에서 좋은것들을 쓰고살겠는가고 하시면서 굳이 만류하신 우리 수령님.

또 언젠가는 일군들이 시대적미감에 맞는 크고 훌륭한 새 저택을 마련해드리려고 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통무를 의 생각은 자신과 인민을 분리하여보는 잘못된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평양에 소년궁전을 크게 짓자고 하는데 통무들이 소년궁전을 지을 때는 하고 싶은대로 마음껏 크고 화려하게 지으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정녕 만경대의 추녀낮은 초가집에서 탄생하시여 한평생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업적을 우리 어찌 세월이 간들 잊을수 있으랴.

또 하나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준다.

자신의 수첩에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문제를 적어넣으시고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소중히 품고계신 위대한 장군님,

한생을 후대교육사업에 고스란히 바쳐가는 교육자들의 살림집때문에 얼마나 마음쓰시였으면 우리 장군님 수첩에 보물이 일도록 붉은색동그라미를 긋고 또 그으시였으랴.

그래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그 소원을 풀어드리시려 명당자리에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일떠세워주시고 장군님의 사랑까지 다 합쳐온 세상이 부러울게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오늘은 또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하늘처럼 떠받드신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듯이 받들어갈 의지를 안으시고 금수산태양궁전 사회주의문명이 웅축된 새 거리를 일떠세워주시였거니.

진정 태양의 성지와 잇닿은 려명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이 현실로 꽃펴난 인민사랑의 거리, 인민의 행복한 웃음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민헌신의 력사를 끝없이 빛내여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가 일떠세운 사회주의선경거리이다.

하기에 궁궐같은 새 집들에 행복의 보금자리를 편 려명거리의 주인들은 심장으로 웨치고있다.

우리 원수님의 한없이 숭고한 인민사랑과 더불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정 영 철

# 미래의 세계력기강자들이 자라난다
## 2017년 세계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이룩한 우리 선수들의 경기성과를 두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끓게 하고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들에서 공화국기를 더 높이 휘날리며 체육강국건설의 전망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얼마전 타이에서 진행된 2017년 세계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우리의 미더운 력기선수들이 자랑찬 경기성과를 이룩하여 온 나라 체육인들과 애호가들,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국제경기에 처음 참가하는 우리의 신진선수들은 해당한 몸무게급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선수들로 구성된 조에 속하여 경기를 진행하였다.

### 련합기업소체육단선수가 세계청소년선수권보유자로

평범한 농장원의 가정에서 나서자라 2.8비날론련합기업소체육단의 축구선수로 선수생활의 첫걸음을 내디딘 한정심선수가 력기종목으로 방향전환하게 된 동기가 있었다. 2012년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림정심선수의 경기소식에 접하였을 때였다.

그때 한정심선수는 전도유망한 축구선수로도 얼마든지 발전할수 있었지만 림정심선수처럼 력기선수가 되여 금메달을 쟁취함으로써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겠다는 결심을 간직하게 되였다.

력기선수의 재질을 갖추고있는 한정심선수는 서명력감독의 지도밑에 세계적인 강자가 되기 위해 피타는 노력을 기울였다.

혼련의 나날 감독이 한정심선수에게 늘 하던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중앙이나 도체육단들에 비해 비록 규모가 작은 련합기업소체육단의 선수이지만 얼마든지 세계적인 력기강자가 될수 있다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체육단선수답게 혼련의 날과 날을 이어온 한정심선수는 불과 몇년사이에 높은 력기기술을 소유하고 국내력기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마침내 이번 선수권대회에 참가하게 되였다.

녀자력기 48kg급경기에 출전한 그는 끌어올리기에 이어 추켜올리기를 신심있게 진행하였다. 청소년선수권을 쟁취하는가 못하는가를 결정짓는 마지막들기에 나선 중요한 시각에 한정심선수의 뇌리에는 혼련의 힘든 고비때마다 들려주던 감독의 이야기,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는 훌륭한 력기선수가 되라고 당부하던 부모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런 그였기에 세번째 들기까지 보란듯이 성공시킬수 있었으며 마침내 종합 1등을 쟁취하고 람홍색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리게 되였다.

력기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예상을 뒤집은 한정심선수의 경기성과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아시아력기련맹의 한 성원은 조선은 이전에도 그러하였지만 지금도 아시아와 세계력기계에서 중추적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금메달을 쟁취한 우리 선수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국제력기련맹 위원장은 높은 경기성과를 이룩한 한정심선수를 뜨겁게 포옹해주면서 앞으로 더 높은 경기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진심으로 고무격려하였다.

### 소년단원이 쟁취한 금메달

2017년 세계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 녀자력기 53kg급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중에서 우리 나라의 김일경선수는 나이가 제일 어리였다.

조선인민군 군관인 그의 아버지와 제대군관이며 보건일군인 어머니는 물론 대학생인 오빠까지도 모두 체육애호가들이다. 이런 체육애호가집안의 외동딸이 력기선수가 된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어기에도 남다른 사연이 있었다.

소학교에 입학하였을 당시 일경이는 우연히 력기감독의 눈에 들게 되였다. 어릴 때부터 음감이 빠른 일경이에게 악기다루는 법을 배워주려던 부모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때 할아버지가 단마디로 선을 쭉 그어주었다.

《당에서 체육강국을 건설하자고 호소하였는데 우리 집안에서도 그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일경이가 어느모로 보나 력기종목에서 성공할수 있는 적성체질의 소유자라고 하는 청소년체육학교 지도교원의 의향을 따르는것이 좋겠다.》

하여 일곱살때부터 중구역청소년체육학교에서 력기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일경이는 몇년후부터 전문가들의 주목을 끌게 되였다. 물론 나어린 소녀에게 있어서 기술을 련마하기 위한 혼련의 나날은 순탄치 않았다.

언제가 일경이는 자기 기술이 유망처럼 발전하지 못하는 현실앞에서 동요한적이 있었다. 감독은 물론 부모들까지도 망설이기만 하였다. 이때 할아버지가 조국의 흙을 담은 자그마한 붉은 천주머니를 손으로 어루쓸며 이야기하였다.

《비록 나이는 어려도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는 길에 나선 우리 일경이가 근 30년간 군사복무를 한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국제경기에 참가하게 될 때 이 흙주머니를 내놓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일경이가 주인이 될수 없을것 같구나.》

이날 밤 일경이는 할아버지에게서 김금순을 비롯한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아동단원들과 소년선봉대원들이 일제를 쳐부시는 성전에 떨쳐나서 용감하게 싸운 내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정신세계를 그대로 본받아 기어이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게 되였다. 미래의 력기강자가 되고싶은 꿈을 안고 혼련의 나날을 이어온 소녀는 그때부터 더 많은 땀을 흘리면서 힘겨운 고비를 이겨냈으며 마침내 높은 력기기술을 소유할수 있었다. 하여 김일경선수는 알카슴에 소년단넥타이를 날리는 그 어린 나이에 이번 세계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자기보다 2-3년이나 우인 다른 나라 선수들을 기술적으로 압도하는 놀라운 화폭을 펼치였다.

끌어올리기에서부터 전문가들의 눈부리를 빼기 시작한 김일경선수는 추켜올리기에서 다른 나라 선수들보다 더 많은 107kg을 들어올려 금메달을 쟁취하고 종합순위에서 두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제일 나이가 어린 조선선수가 이런 훌륭한 성과를 거두자 력기전문가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 *

이밖에도 2017년 세계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나라의 리광성선수는 남자력기 69kg급경기 끌어올리기에서 미국선수보다 더 많은 무게를 들어올려 1등을 쟁취하고 종합 2위의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박성희선수는 녀자력기 44kg급경기에서 3개의 메달을 획득하였다. 이로써 우리 선수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인원이 참가한 조건에서도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4개를 포함한 10개의 메달을 쟁취하게 되였다.

뜻깊은 태양절을 앞두고 우리의 미더운 력기선수들이 2017년 세계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이룩한 자랑찬 경기성과는 만리마의 기상으로 비약하고있는 주체체육의 자랑찬 발전면모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된다.

본사기자 지 혁 철

# 띄운콩을 만드는 방법

먹기도 좋고 건강에도 매우 좋은 띄운콩을 만드는 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선별한 콩 500g을 깨끗이 씻은 다음 20℃정도의 물에 6시간정도 불군다. 콩이 다 불구어지면 물을 찌우고 잘 익을 때까지 가마에서 찐다. 불군 콩 1kg은 가정용가마에서는 대략 3시간, 가압가마에서는 게기압력 1기압에서 1시간, 1.5기압에서는 40분정도 찐다. 콩을 찌는것이 삶는것보다 좋다. 불군 콩을 삶는 경우에는 콩이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잘 익을 때까지 푹 삶는다.

띄운콩종균액은 끓여서 식힌 물 한숟가락정도에 쌀알크기정도의 띄운콩가루종균을 풀어서 만든다. 이렇게 만든 종균액을 80℃까지 식힌 찐 콩우에 고르롭게 뿌리고 살균된 밥주걱으로 저어주거나 키질을 하듯이 친다.

다음 비닐봉지에 찐 콩을 500g정도씩 담아 그릇에 두께가 약 2.5~3㎝정도 되게 놓고 봉지웃부분을 어기여놓는데 이때 눌러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릇뚜껑과 콩봉지웃면사이의 공간이 3~4㎝정도 되게 그릇에 뚜껑을 덮은 다음 37~40℃정도 되는 곳에 놓고 18시간동안 배양하면 콩알표면에 보얗게 균이 자란다. 배양을 시작하여 8~10시간이 지나면 그릇안의 온도가 오르는데 이때 온도를 항상 40℃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띄운콩을 저가락으로 저어주다가 들어올리면 실같은 진이 길게 늘어나는데 이 길이가 1.5m정도이면 띄운콩의 질이 좋은것으로 평가할수 있다.

배양이 끝나면 띄운콩을 그대로 먹거나 5℃정도 되는 랭장고에서 18시간동안 숙성시켜 먹을수 있다.

띄운콩은 소금, 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마늘, 파, 참깨, 겨자와 같은 향신료로 조리하여 먹는다.

띄운콩은 급등 또는 랭동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식료일용연구원 발효연구소 하 준 혁

# 힘있는 경제선동으로

회안탄광에서 화선식경제선동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번지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이곳 탄광기동예술선동대에서는 힘있는 경제선동으로 탄부들의 생산열의를 더욱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었다.

이에 기초하여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갱막장들에 달려나가 탄부들과 일도 함께 하고 작업의 쉴참에는 심금을 울리는 전투적인 예술선동활동을 벌려나가고있다.

이들의 힘있는 경제선동에 고무된 탄부들은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일 불타는 일념을 안고 매일 석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로농통신원 박 재 근

# 세계 여러 나라의 력사유적들

### 루앙프라방의 시가지

루앙프라방은 1353년에 세워진 라오스의 란쌍왕국의 수도로 번성했다.

당시 이 도시는 씨앙통이라고 불리웠으나 첫 왕이 캄보자에서 프라방이라고 하는 황금불상을 가져온데로부터 루앙프라방이라고 고쳤다고 한다.

란쌍왕국시기에 부파불교가 침투하였으며 거리에는 마이스와나푼람사원을 비롯하여 80개이상의 사원이 세워졌다.

그가운데서도 14세기에 건설된 씨앵통사원은 거리에서 제일 큰 건물로서 건물전체를 덮을듯이 이은 경사가 급한 지붕이 특징적이다.

또한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되였던 19세기에 건설된 로대와 벽란다들이 있는 서양식건물들도 있다.

이처럼 여러가지 양식의 건물들이 융합된 루앙프라방의 거리는 지금도 란쌍왕국의 력사를 전해주고있다.

### 에딘버러의 옛 도시와 새 도시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는 웨버리역을 경계로 하여 에딘버러성과 홀리루드하우스궁전, 쎄인트 자일즈대성당 등이 있는 옛 도시와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하여 18세기에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진행된 새 도시로 갈라진다.

옛 도시에 있는 건축물들가운데서도 에딘버러성은 오랜 력사를 자랑하는 스코틀랜드의 상징으로 되고있다.

바둑판모양으로 건설된 새 도시에는 고대그리스의 건축을 본딴 스코틀랜드왕립아까데미아와 국립스코틀랜드미술관, 왕립고등학교 등의 건물들이 있다.

이로 하여 에딘버러는 《북쪽의 아테네》라고도 불리우고있다.

김 성 룡

# 사격경기의 유래

사격경기는 어려가지 경기용총으로 움직이는 목표, 움직이지 않는 목표를 제정된 거리와 시간 및 사격자세에서 쏘아맞혀 얻은 점수로 승부를 가르는 체육경기이다.

인류의 발전과 함께 더 멀리, 더 빨리, 더 정확히 맞히기 위한 기재가 발명되고 과녁이 출현하였는데 가장 원시적인 활쏘기경기는 활의 발명과 함께 시작되였다. 결국 사격경기는 활쏘기에서 유래되여 총과 화약, 총탄의 발명과 함께 시작되였다. 사격경기는 처음에 연알을 장탄한 다음 심지에 불을 달아 화약을 연소시켜 총알이 나가게 하는 총을 리용하여 진행되였다. 그후 총탄을 총신뒤로 장탄하는 무기가 발명되면서부터 세계적범위에서 사격경기가 보다 광범히 진행되였다.

특히 강선이 있는 무기와 뢰관을 리용한 총탄의 발명은 사격시간과 거리, 명중률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왔으며 경기기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였다. 현재 무강선무기로 날치기사격경기, 강선무기로 대구경보총, 소구경보총, 권총, 이동보총사격경기가 진행되고있다.

이와 같이 사격경기는 오랜 력사를 가진 실용체육종목의 하나로 되고있다. 사격경기는 사수로 하여금 침착성과 자제력, 관찰력과 고도의 주의집중력을 키우게 하는 국방체육종목의 하나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진행되고있다.

본사기자

# 력사의 반동들을 단호히 쓸어버려야 한다

남조선에서 5월 9일에 있게 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당파들의 선거경쟁이 날을 따라 치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비롯한 악질보수패거리들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추악한 재집권야망을 실현해보려고 피를 물고 발악하고있다.

보수정당의 후보라는자들은 저저마다 《우파들이 뭉쳐 이번 선거에서 대역전극을 펼쳐야 한다.》, 《박정희때처럼 강한 보수를 만들어야 한다.》고 열을 올리며 보수세력의 재집권을 제창하고있는가 하면 엊그제까지만 하여도 개와 고양이처럼 물고뜯던자들이 언제 그랬던가싶게 《선거련대》와 《후보단일화》를 떠벌이면서 한이불속에 기여들려 하고있다. 더러운 시정배들은 낯가죽두텁게도 어기저기를 싸돌아치며 《다시 가슴에 불을 질러 일어나자.》느니, 저들이야말로 《새로운 보수의 희망》이라느니, 《정치개혁을 이룰 적통후보》라느니 뭐니 하고 억겨운 노죽까지 부리면서 민심을 낚아보려고 치졸하게 놀아대고있다.

여기에 《박사모》, 《대통령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운동본부》를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까지 합세하여 《안보위기》와 《색깔론》북풍을 요란히 두드리면서 진보민주개혁세력의 진출을 가로막고 선거판세를 보수세력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보려고 발버둥질치고있다. 더우기 가증스러운것은 《박근혜시대는 끝장났다.》느니, 《집권하면 법과 정의를 바로세우겠다.》느니, 《깨끗한 보수》라느니 하고 피대를 돋구면서 마치도 저들은 박근혜와 인연이 없는듯이 요사를 떨고있는 역적패당의 추태이다.

하지만 역적패당이 별의별 기만극을 다 펼쳐놓아도 남조선인민들은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언론기관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대다수가 보수세력에 대한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한것은 반역패당에게 동을 돌린 민심의 속도라고 할수 있다. 남조선인민들이 보수라는 말만 들어도 도리머리를 치는것은 지극히 응당하다.

남조선괴뢰보수패당은 박근혜와 한짝이 되여 온갖 죄악책망동을 일삼은 특등범죄집단이다.

박근혜역도의 죄악이자 보수반역패당의 죄악이다. 보수의 터밭에서 돋아난 독초가 박근혜이고 늙다리악귀의 손아귀에 권력을 쥐여주어 사대매국과 파쑈독재, 반통일의 과거를 되살린 력사의 반동들이 바로 괴뢰보수세력이다. 민족을 반역하고 남조선인민들에게 죽음의 고통을 강요한 천하악녀의 죄악의 갈피마다에는 보수반역패당의 더러운 물골이 속속들이 새겨져있다.

박근혜역도가 하는짓이라면 그것이 민족의 리익을 해치든, 전쟁을 불러오든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비호하고 맹종맹동한 미시리들이 바로 보수패거리들이다. 반역《정권》의 사대매국정책강행의 돌격대로 나서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무한정 연기하고 막대한 혈세를 미제침략군의 유지비로 퍼부은것도 모자라 침략군피수를 등에 업고 돌아친 쌀개빠진 반역아들도 이자들이고 민족의 운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재앙거리인 《싸드》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려는 박근혜역도의 망동에 그 무슨 《안보의 필요성》을 운운하며 선참으로 박수를 보낸 추물들도 이건 《새누리당》패거리들이다. 일제의 치떨리는 과거죄악을 몇푼의 돈으로 어물쩍 해치운 역도년의 죄악을 《어떤 합의보다 잘된 합의》라느니 뭐니 하고 극구 추어올린 현대판 《을사오적》무리도 다름아닌 보수반역패당이다. 친미, 친일에서 늙다리창녀와 한바리에 실어도 기울지 않을 천하의 역적무리들이 제편에서 《박근혜시대의 끝장》이요 뭐요 하며 수염을 내리쓴다고 해서 시대와 매국으로 얼룩진 죄악을 가려올수 있는가.

남조선인민들이 생각만 해도 몸서리치는 피비린 《유신》독재를 고스란히 부활시킨 범죄자들도 다름아닌 괴뢰보수패당이다.

박근혜역도의 1인독재통치의 하수인이 되여 《국회》를 과쑈광의 거수기, 독판치기와 폭력의 란무장으로 전락시킨 정치깡패무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늘 남조선은 세계최악의 정치후진지역, 정당, 단체, 언론활동의 자유가 짱그리 말살된 《야만의 사회》로 세인의 지탄을 받고있다. 애어린 자식들을 출지에 잃고 원한에 몸부림치는 《세월》호유가족들을 《좌파세력》으로 몰아대며 탄압하고 반인민적악정에 항거해나선 고령의 농민에게 물대포를 퍼부은 살인마들의 죄행을 다 렬거하자면 끝이 없다.

온 남조선을 분노의 불도가니에 몰아넣은 박근혜역도의 특대형추문사건은 그대로 부정부패에 써들은 보수패거리들의 추악한 정체를 낱낱이 고발하고있다. 제륜아의 구린내나는 죄악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징벌의 불길이 되여 온 남조선땅을 휩쓸고있을 때 《박근혜가 탄핵되면 손바닥에 장을 지지겠다.》고 궤변대며 억도의 파수군노릇에 극성을 부린 반역패당의 망동을 보면서 남조선 각계층은 이자들이야말로 박근혜와 함께 단호히 매장해버려야 할 인민의 극악한 원쑤임을 뼈저리게 절감하였다.

죄악의 과국에 처한 북남관계의 현 실태도 괴뢰보수패당의 반통일대결죄악과 절대로 떼여놓고 볼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제제하의 통일을 위해 죽자.》고 히스테리를 부리며 사회전반에 동족대결분위기를 고취하고 북침불장난에 미쳐돌아친 대결광들때문에 북남협력의 마지막숨통마저 끊어지고 조선반도에는 어느 하루도 핵전쟁위험이 때돋지 않은 날이 없었다.

최근 괴뢰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패거리들은 《외교안보정책은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느니, 《대북강경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다음기 《정권》이 박근혜역도의 대결정책을 페기하지 못하도록 압박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박근혜역도가 오라를 졌어도 남조선에서 동족대결의 광풍이 수그러들지 않고있는 원인은 바로 그 잔당들이 풍지박산난 대결정책유지에 미쳐날뛰고있기때문이다.

《대통령》선거가 박두하고있는 지금 보수패당의 재집권책동은 발악적단계에 이르고있다. 보수편거지들은 그 무슨 《안보위기》설을 요란스럽게 내돌리면서 재집권의 구멍수를 열어보려고 획책하고있다. 역적배들은 《이번 선거는 단순한 〈대통령〉선거라기보다 좌파〈정권〉을 택할것인가, 우파〈정권〉을 택할것인가의 문제》라느니, 《북핵문제로 일촉즉발의 위기가 와있는 순간에 좌파〈정권〉이 출현하여서는 안된다.》느니 하고 기염을 토하면서 진보민주세력의 진출을 가로막으려고 필사적으로 날뛰고있다. 나중에는 황당한 여론조작으로 선거를 《북풍》, 《색깔론》의 란장판으로 만들려고 획책하고있다.

현실은 북남관계를 파국의 수렁에 계속 붙박아두려는 죄악의 무리를 청산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박근혜역도는 계속 출현하고 반역《정권》의 죄악의 력사는 근절될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반동보수세력의 보수《정권》연장음모를 철저히 짓부시지 못한다면 남조선인민들은 또다시 박근혜와 같은 악귀의 발굽밑에서 피흘려야 한다.

자기들의 삶을 통하여 이 교훈을 뼈에 새겼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력사의 반동들을 매장해버리기 위한 반보수투쟁에 결연히 떨쳐나서고있다.

각성된 민심은 보수역적무리들의 도전망동을 절대로 용납치 않을것이다.

낡은 세력의 멸망은 력사의 필연이며 새 정치, 새 생활은 남조선인민들의 막을수 없는 지향이다.

정의와 진보를 바라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근로대중이 반동보수세력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징벌하는가를 현실은 명백히 증명할것이다.

온 정 철

# 대결광신자들의 무모한 광대극

얼마전 괴뢰통일부가 올해부터 3년간 추진할 《북인권증진기본계획》이라는것을 수립하였다고 발표하여 사람들을 아연실색케 하였다.

대문밖이 저승길인자들이 그런 어망치망한 놀음을 또 벌려놓았으니 그럴수밖에 없다. 그러거나말거나 괴뢰통일부것들은 저들이 작성한 계획이 지난해 9월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간 《북인권법》에 따른것으로서 그 누구의 《인권증진》방안들이 포함되여있다고 너럼대고있다.

카관은 서둘러 조작해낸 그 계획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은 저들의 임기신세가 될가봐 몹시 초조해하면서 《초당적이며 원칙적인 계획》이라느니, 새 《정부》출현이후 《화정될 전망》이라느니 하고 떠들어대고있는것이다.

괴뢰통일부의 이번 《북인권증진기본계획》조작놀음은 숨넘어가는 마지막순간까지 동족대결책동에 발악적으로 매달리는 대결미치광이들의 추악한 몰골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머지않아 밤통을 메울 괴뢰통일부것들이 그 누구의 《인권문제》나발을 지껄에 불어댄다고 거기에 귀기울일 사람은 없다.

명색이 통일부라는것이 박근혜와 같은 대결광녀의 뒤치닥거리나 하면서 생살에 구데기붙이겠다는 격의 더럽고 치사한 도발적망동을 일삼은것으로 하여 력대 가장 수치스러운 《대결부》, 《압통부》로 몰리우고있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개도 안물어갈 그 잘난 감투를 쓰고있을 날도 며칠 남지 않은 괴뢰통일부것들이 제 치지도 분간 못하고 이따위 뻔수없는 놀음을 벌려놓은것은 정말 어이없는 광대극이 아닐수 없다.

하지만 운명이 경각에 달한 순간까지도 괴뢰들이 우리의 존엄과 영상을 흐려놓으려고 날치는 이상 거기에 깔린 범죄적목적을 까밝히지 않을수 없다.

괴뢰통일부것들이 박근혜의 《대북정책》에 대한 《리해를 돕는다》는 구실로 개성공업지구의 완전페쇄, 《대북제재》실시와 함께 《북인권법》제정을 저들의 치적으로 광고하는 《통일백서》라는것을 발간하였다가 여론의 못매를 맞은것이 얼마전의 일이다.

이자들이 이번에 또다시 다음기 《정권》의 《대북정책방향》까지 제시해주는 《북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이라는 황당한 놀음을 벌려놓은것은 통지박산난 동족대결정책을 합리화하는것과 함께 《북인권》소동이 다음기 《정권》하에서도 강행되도록 사전에 못을 박아놓으려는데 그 흉심이 있다.

다시말하여 저들이 박근혜의 너절한 손발이 되여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에로 몰아넣은 죄악의 력사가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후에도 되풀이되지 못하여 북남관계가 개선되지 못하게 제동을 걸자는것이다.

괴뢰보수패당이 《인권》소동따위로 누구를 어쩌보겠다고 최후발악하고있지만 그것은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영원히 이룰수 없는 개꿈에 지나지 않는다. 선군으로 위용떨치고 일심단결로 승승장구하며 인력의 해빛아래 만복의 향기풍기는 우리 사회주의제도를 미국상전의 노린내나는 사타구니에서 기생하는 얼간망둥이들이 큼광내나는 《인권》소동으로 흔들어보겠다고 하는것은 벤발로 바위를 차는것과 같은 어리석은짓이다.

《북인권》이니 뭐니 하며 멋없이 날뛰는 대결광신자들은 저들의 반통일죄악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박근혜년의 비참한 말로를 보지 못하는가.

천박한 무당년이 박근혜를 혹두각시처럼 조종하고 그에 업빠진 특등미시리가 황당한 《북풍피》주문에 놀아나 《북인권》소동에 기를 쓰고 매달리면서 사태를 수습할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었다는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악랄한 북침전쟁책동과 머무니없는 《북인권》소동으로 북남관계를 오늘과 같은 최악의 파국상태에 빠뜨린 극악한 대결악녀의 공범자, 특등하수인들이 바로 괴뢰통일부것들이다.

이런자들이 《북인권증진기본계획》이니 뭐니 하면서 숨넘어가는 마지막순간까지 동족대결에 환장하여 들아치고있으니 이를 어찌 용납할수 있겠는가. 괴뢰통일부것들이야말로 역도년과 함께 하루빨리 순장시켜버려야 할 력사의 오물들이 분명하다.

역적들은 저들의 죄악의 대가를 피로써 치르게 될것이다.

그가 누구든지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매달리면서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해치려고 발광하는자들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다.

허 영 민

## 서해열점수역에서 우리측 령해에 대한
# 괴뢰해군함선들의 침범행위 폭발적으로 급증

서해열점수역에서 우리측 령해에 대한 괴뢰해군함선들의 침범행위가 더욱더 빈번해지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은 최근 열흘동안에만 하여도 81차에 연 10척의 괴뢰해군함선들을 우리측 령해에 들이밀었다.

이것은 지난 3월 한달동안에 침범한 차수의 근 2배에 달하는것으로 된다.

이로 하여 긴장감이 항시적으로 배회하고있는 조선서해열점수역에 또다시 군사적충돌위험이 조성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군부호전광들은 이 수역에서 괴뢰해군함선들의 기동이 《불법어선단속》을 위한것이라고 하면서 우리측 령해에 대한 저들의 침범행위를 합리화해보려고 몸부림치고있다.

사태의 심각성은 괴뢰들의 군사적도발행위가 현재 남조선전역에서 우리에 대한 《선제타격》을 노리고 강행되고있는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절정에 이르고 핵동력초대형항공모함 《칼빈손》호와 핵동력잠수함 《미쉬건》호를 비롯한 미국의 핵타격수단들이 조선반도수역에 긴급투입되여 우리에 대한 군사적도발의 수위가 최대로 높아지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고있다는데 있다.

서해열점수역에서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괴뢰해군함선들의 무분별한 침범행위는 3국어선들의 《비법어로》활동을 막는다는 미명밑에 《북방한계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우리의 군사적대응을 유도해내는 방법으로 《안보위기》를 조성하려는 불순한 속내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우리 군대는 조선서해열점수역에서 벌어지고있는 모든 움직임을 고도의 각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상전을 믿고 설쳐대는 삽살개마냥 주제넘게 《감내하기 어려운 징벌》이니, 《선제타격》이니 하는 망언들을 늘어놓다 못해 최대열점수역에서 새로운 불장난질을 하려고 획책하고있는 괴뢰패당의 분별없는 망동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괴뢰호전광들은 부질없는 경거망동이 파멸적운명을 초래하게 된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미국의 책동이 날로 더욱 무분별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최근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유사시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생화학전쟁계획인 《쥬피터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장비들을 끌어들여 부산항에 있는 미군기지에 배치하였다. 그리고는 저들의 망동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규탄을 모면하기 위해 탄저균을 반입하거나 그에 대한 실험을 하려는것은 아니며 《람지가 주요목적》이라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원래 미국은 지난해 11월까지 부산항에 종합적인 생화학무기실험실과 관련장비들을 설치하기로 괴뢰들과 합의하였었다. 하지만 부산시민들을 비롯한 남조선 각계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쳐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던것이 남조선정국이 《대통령》선거국면에 접어들고 여론의 관심이 온통 거기에 쏠리게 되자 《쥬피터계획》실행을 위한 관련장비들을 전격적으로 반입하는 망동을 부린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생화학전쟁의 도발을 피하며 그 실현에 발광적으로 매달리고있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미국은 이미전부터 남조선에서 북침생화학전도발을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다그쳐왔다. 미국의 범죄적인 생화학전도발책동에 의해 남조선은 오래전에 거대한 생화학무기고로 전변되였으며 남조선 각지에 널려있는 미제침략군기지들에서는 생화학전실험이 끊임없이 벌어졌다. 미국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남조선에 몰래 끌어들이고 미군기지들에서 그와 관련한 실험들을 계속 감행한것은 그 한 실례에 불과하다.

미국이 남조선을 북침핵전초기지로 만들어놓은것도 성차지 않아 생화학전쟁장비들까지 끌어들이는것은 온 남녘땅을 생화학전시험장으로 만들고 우리 민족에게 참혹한 재난을 들씌우려는 치떨리는 반인륜적범죄행위이다. 미국의 생화학전도발책동은 실로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괴뢰역적패당은 미국의 책동에 적극 맞장구를 치면서 남조선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다. 괴뢰패당이 미제침략군의 위험천만한 탄저균실험만행에 대해 못본척 하면서 그것을 반대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틀어막아왔다는것은 널리 폭로된 사실이다.

괴뢰들의 속심은 뻔하다. 남조선인민들이야 죽든말든 미국을 등에 업고 통족만 해치면 된다는것이다. 이런 극악한 매국역적들이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아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팔아먹고있으니 그들이 어찌 재난을 당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더우기 엄중한것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생화학전장비만입이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대북선제타격》을 운운하며 각종 핵타격수단들과 《특수작전》병력을 총동원하여 북침전쟁연습에 여느때없이 광분하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고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시기 거듭되는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세균무기, 화학무기까지 대량적으로 사용하여 우리 인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였다. 미제가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감행한 이 야수적만행은 오늘도 우리 인민과 온 겨레를 분노에 치를 떨게 하고있다.

미국의 살인마적본성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다. 북침전쟁열에 들뜬 미제호전계층은 지금 모험적인 《대북선제타격》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북침생화학전쟁도발을 위한 준비까지 다그치고있다. 이것은 미제호전계층이 제2의 조선전쟁을 핵전쟁, 생화학전쟁으로 만들 흉악한 계획을 품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최근 미국이 머무니없이 우리의 《생화학무기위협》설을 내돌리면서 여론을 오도하려 한것도 결국은 저들의 북침생화학전도발책동을 정당화하고 더한층 강화하기 위한 술책이였다.

미제야말로 북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민족을 생화학무기로 멸살시키는것도 서슴지 않을 극악한 침략자, 살인마이다. 미국상전의 범죄적인 북침생화학전도발책동을 비호두둔하며 그에 적극 추종해나서는 괴뢰보수패당도 남조선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용납 못할 매국반역의 무리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북침핵전쟁, 생화학전도발책동이 날로 엄중해지고있는 지금 우리가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온갖 재앙의 화근인 미국을 무자비하게 징벌하고 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려는것이 백두산혁명강군의 필승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군사적도발망동에 매달릴수록 그것이 종당에는 저들의 가장 비참한 멸망에로 이어지게 된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인민들은 조선반도에서 북침생화학전쟁을 일으키려고 분별없이 날뛰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범죄적망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거족적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것이다.

김 충 성

# 위험단계에 이른 생화학전도발책동

## 미국의 《싸드》배치와 전략자산 전개책동의 즉시중지를 요구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25일 괴뢰국방부앞에서 미국의 《싸드》배치와 전략자산의 조선반도전개를 반대하여 180차 평화군축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지난 주 남조선강점 미군이 《싸드》배치를 위한 공사장비를 끌어들이고 괴뢰군이 관련장비들을 반입하려고 한데 대하여 비난하면서 불법적인 《싸드》배치는 중지되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들은 박근혜의 최대악폐인 《싸드》배치가 그 공범자들에 의해 계속되고있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싸드》배치를 추진했던 부역자들을 끝까지 찾아내여 책임을 따질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대통령》선거후보들이 《싸드》배치를 추진할 립장을 가지고있다고 규탄하면서 그들은 《대통령》선거후보들이 평화를 위협하는 《싸드》배치를 반대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미제침략군 남조선에서 《페트리오트》미싸일전개훈련 감행

21일 남조선 《련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미제침략자들이 미국과 일본에 있는 《페트리오트》미싸일부대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훈련을 감행하였다.

지난해 남조선강점 미8군의 35방공포려단은 미국 텍사스주 둔 11방공포려단, 일본 오끼나와주둔 1방공포련대와 함께 3차례에 걸쳐 남조선에서 《페트리오트》미싸일전개훈련을 벌리였다.

특히 미제는 지난해 7월 공개적으로 오끼나와주둔 《페트리오트》미싸일부대를 수송선으로 부산항에 끌어들여 전라북도 군산으로 이동시킨 다음 괴뢰군의 《페트리오트》미싸일부대와 두주일동안 련합훈련을 진행하였다.

미제와 괴뢰들은 이 훈련을 유사시 《페트리오트》미싸일부대를 해상과 공중으로 신속히 전개하는 능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떠벌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북침전쟁책동에 얼마나 피눈이 되여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 월간국제정세개관
# 강력한 자위력은 평화수호의 근본담보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과 국제반동세력들이 세계지배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처에서 군사적도발과 주권국가들에 대한 제재와 압력, 내정간섭행위, 군국화책동을 일삼으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 과괴하고있다. 이달의 국제정세흐름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4월에도 조선반도정세는 의연 세계의 초점으로 되였다.

미국의 트럼프행정부가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조선정책을 내놓았다. 우리를 압살하기 위해 다방면적인 군사, 외교적압박과 강도높은 경제제재의 강화, 남조선에 대한 전술핵무기재배치뿐아니라 일방적인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력사용까지도 서슴지 않으려 하고있다.

미국은 이달에 사상 최대규모의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남조선괴뢰들과 핵전쟁연습소동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렸다. 얼마전에도 미제침략군 《칼빈손》호핵항공모함타격단소속 이지스구축함 《마이어》호가 조선서해로 기동하여 괴뢰해군의 구축함과 함께 전술기동과 함포사격을 동반한 실탄사격훈련을 벌리며 화약내를 풍기였다.

미대한 몸집을 흔들며 힘자랑을 하는 미국의 허세따위에 놀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우리 공화국은 가증되는 미국의 침략과 도발책동으로부터 조국의 자주권과 존엄,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우리 식의 강위력한 핵선제타격을 포함한 그 어떤 특단의 선택도 마다하지 않을것이라는 강경립장을 엄숙히 천명하였다. 이달에 진행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와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5돐경축 조선인민군 군종합동타격시위를 통하여 벵도자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혈연적으로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불패의 일심단결과 우리의 귀중한 사회주의제도를 어쩌보려고 미쳐날뛰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머리우에 무자비한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붓고 극악무도한 원쑤들의 소굴을 최후멸망의 무덤으로 만들고야말 백두산혁명강군의 멸적의 의지가 만천하에 과시되였다.

공정한 여론은 동방의 핵강국, 아시아의 로케트행주국으로 우뚝 솟아오른 조선의 전략적지위를 망각하고 무모한 핵위협공갈에 매달리고있는 미국의 책동은 불피코 자멸을 재촉하게 될것이라고 한결같이 평하였다.

자기의 힘을 과신하며 과렴치하게 놀아대는 미국의 책동은 중동지역에서도 우심하게 나타났다.

지난 7일 미국은 수리아정부군이 화학무기로 민간인들을 살륙했다는 머무니없는 구실을 내들고 이 나라에 있는 한 공군기지에 수십기의 미싸일공격을 가하였다. 초보적인 국제법마저 란폭하게 유린한 미국의 불법무도한 군사적망동은 명백히 주권국가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침략행위였다. 며칠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로분자들을 소탕한다고 하면서 초대형폭탄을 마구 투하하여 이 나라의 생태환경을 심히 과괴하였다. 《반테로전》의 미명하에 남의 나라 땅에서 공공연히 무기시험을 단행한것이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미국이야말로 자기의 패권적목적을 위해서라면 주권국가들의 자주권과 존엄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 악의 제국, 평화의 교살자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알게 되였다.

이달에 일본반동들의 군국화책동이 더욱 로골화되여 국제사회의 강한 경계감을 자아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 집권자가 전몰자들의 위패가 보관되여있는 야스구니진자에 또다시 제물을 보낸데 이어 총무상이 진자를 참배하였다. 또한 《모두가 야스구니진자를 참배하는 국회의원모임》에 소속되여있는 약 90명의 국회의원들이 참배놀음에 떠여들었다. 지어 일본방위상은 모리또모학원에서 학생들에게 태평양전쟁시기의 《군가》를 부르고 이건 왜왕의 《교육칙어》를 외우도록 하고있는것을 극구 옹호하면서 《전쟁전교육》을 되살려야 한다고 떠벌였다. 이 모든것이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군국주의와 재침열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로골적인 선동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편 일본반동들은 국회 참의원에서 지난해에 비해 1.4% 증가된 5조 1 251억㎥을 2017년 군사예산으로 통과시킨데 따라 각종 현대적인 군사장비들의 개발과 개량, 구매에 열을 올리는 등 군사대국화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사실들은 일본반동들이 해외침략전쟁을 위한 사상적지반마련과 군사적준비를 얼마나 발광적으로 다그치고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침략과 전쟁, 지배와 예속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기를 바라는 인류의 념원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힘으로 저들의 패권야망을 실현해보려는 평화의 원쑤들의 침략책동이 계속되고있기때문이다. 승리는 결코 저절로 이룩되지 않는다. 힘이 강할 때만이 횡포하게 날뛰는 력사의 반동들의 침략과 도전을 과감히 짓부시고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다. 강력한 자위적힘은 평화수호의 근본담보이다. 현실은 진정한 평화를 바라는 나라라면 마땅히 부정의를 타승할수 있는 힘을 갖출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이것이 이달의 정세흐름의 주되는 총화이다.

안 철 권

# 조국의 청년대군과 어깨겯고 반미대결전의 앞장에서 나아갈것이다

##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대변인이 담화 발표

재중조선인청년련합회 대변인이 25일 담화를 발표하여 재중조선청년들이 조국의 청년들과 어깨겯고 반미대결전의 앞장에서 나아갈것을 선언하였다.

담화는 반미대결전, 조국통일성전의 맨 앞장에서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백두의 번개, 백두의 폭풍이 되겠다고 선언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성명에 접한 재중조선청년들모두의 가슴은 조국의 청년들과 함께 세리발치는 증오와 보복의 불길로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고 밝혔다.

공화국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제타격》나발까지 공공연히 불어대며 우리의 존엄과 사회주의제도를 어쩌보려고 피를 물고 날뛰고있는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을 추호도 용납할수 없다고 담화는 지적하였다.

담화는 원쑤들이 우리 공화국과 백두의 청년들을 불러도 너무나 모르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사적위력과 일심단결의 대화폭을 가슴후련히 과시하고 전세계의 찬탄의 목소리를 자아낸 태양절경축 열병식에서 보여준 무적의 철갑대오들이 전부가 아니라는것을 적들은 똑똑히 알아야 할것이다. 우리 조국은 세상에 둘도 없는 백두산청년강국이며 원쑤격멸의 제일선에는 바로 우리 청년들이 천겹만겹의 성새를 이루고 억척같이 서있다.

적들은 정의의 핵폭탄으로 만장약된 500만 청년대군의 분노가 머지 않아 동족의 지붕위로 쏟아져나가고말것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평범한 날에나 시련의 날에나 언제나 어머니조국과 생사운명을 같이해오고있는 우리 재중조선청년들은 만일 침략자들이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반미투수전의 제일선에 용약 뛰여들 활화산같은 결의로 심장을 끓이고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 해외동포청년들처럼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원쑤를 증오하며 판가리결전에 한목숨바칠 각오로 충만된 청년들이 없다는것을 원쑤들은 미처 깨닫지도 못한채 지승길에 오르게 될것이다.

담화는 재중동포청년들이 조국의 청년대군과 나란히 어깨를 겯고 반미대결전의 맨 앞장에서 나아갈것이라고 선언하였다.

## 미국과 일본이 대조선침략을 노린 공중합동군사연습에 광분

미제침략군과 일본의 《자위대》무력이 28일 우리 공화국을 노린 공중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미제침략군의 핵항공모함 《칼빈손》호에서 리륙한 전투기들이 오끼나와동쪽상공에서 일본항공《자위대》의 전투기들과 공중전훈련에 광분하였다.

《칼빈손》호핵항공모함타격단과 일본의 전투기, 호위함들을 비롯한 항공, 해상《자위대》무력이 여기에 투입되였다. 이번 합동군사연습을 두고 일본의 한 신문은 조선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미제침략군은 지난 23일부터 일본 《자위대》무력과 함께 우리 공화국을 목표로 한 침략전쟁연습을 벌리고있다.

남조선과 주변에 전략자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일본, 남조선괴뢰들과 합동군사연습을 계속하고있는 미제의 책동은 조선반도긴장상태에 대한 국제적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있다.

## 유럽에서 폭풍피해

유럽에서 지난 60여년동안에 약 5 500차례의 폭풍이 휩쓸어 많은 인적, 물적피해를 입었다. 1950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에 폭풍으로 유럽의 42개 나라들에서 300명이상이 목숨을 잃고 4 400여명이 부상당하였으며 약 10억US$어치의 경제적손실이 초래되였다.

기상전문가들은 올해에 폭풍계절이 빠르게 다가오고있다고 하면서 영국과 도이췰란드, 이딸리아북부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710678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